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2-03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역할과 기능 정립 연구

최윤규 신지원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2-03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역할과 기능 정립 연구

최윤규 신지원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최윤규 | 연구위원 | 연구총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공동연구 신지원 | 전문연구원 | 제2장 3절, 4절, 3장(1~3절), 4장 일부

연구관리 코드 : 20JU3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SUMMARY

1. 연구 개요

■ 연구 목적

- 전라북도 인재양성과 평생교육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과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양분되어 있었음. 전라북도는 2020년 6월 1일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했던 평생교육 진흥업무를 인재육성재단의 고유사업으로 포함시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출범시켰음. 현재 두 기관은 물리적으로 통합되었지만 역할과 기능 설정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흥원의 업무 개선과 역할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본 연구는 인재육성과 평생학습은 교육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재육성과 평생학습을 연계하여 전 생애에 걸친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대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첫째, 기존에 연구된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의 개념과 관련 내용을 다룬 정책·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음. 각각 개념에서 지향하는 역할 및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논문 및 유관 기관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음.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의 역할과 한계, 향후 전망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와 관련 법률 및 기본계획과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였음.
- 둘째, 사례검토를 통해 역할과 기능을 규명하였음. 구체적으로 진흥원의 역할과 주요 기능 및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유사한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타기관의 조직현황 및 추진 사업을 분석하였음. 더불어 추진 업무에 대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련 유관 기관에 대한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았음. 이를 바탕으로 지역현황 및 정책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도출하였음.

- 셋째, 관계자 및 사업 수혜 대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재단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조직통합에 따른 조직 운영 방식 및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 의견을 청취하였음. 수혜자 인터뷰에서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기대역할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의 의견을 청취함. 이렇게 모아진 의견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정립을 위한 기능 설정에 주요하게 반영함

2. 문헌검토 및 사례분석 시사점

■ 보편적 인재 개념

- OECD의 인적자본과 교육부의 창의인재는 누구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보편적 개념임. 선행연구들(김순남 외, 2003; 서진연 외, 성경룡 외, 2017; 2022; 윤준상 외, 2008; 이침슬, 2020; 장노순, 2003)에서 현대의 인재 개념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편적 개념임.
- 하지만 구 인재육성재단의 인재는 성적이나 예체능 실적 등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학생으로 전통적 인재관에 머물러 있었음. 따라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인재의 개념은 누구나 잠재력을 가진 인재로 인정하고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보편적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함. 따라서 인재 육성은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는 권리임.
- 이를 확장하면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결합으로 인재뿐만 아니라 전 도민 모두 수혜자로 대상이 확대되어야 함. 그 결과, 전라북도의 인재 및 평생교육의 정책은 특정 계층을 위한 범위적 한계를 넘어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 제공으로 변모해야 함

■ 통합에 따른 차별화 전략

- 부산인재평생교육원은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부산은 인재육성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평생교육 기초 조사와 시민대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업무를 실행하고 있음

- 울산인재평생교육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주로 장학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울산은 2017년 9월 설립된 울산인재육성재단을 2019년 12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법인 변경하였지만 평생학습 업무는 미진한 실정함, 광역자치단체이지만 공간적 범위와 행정업무 범위가 작은 세종은 장학사업을 기본으로 수행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평생교육업무만 수행하고 있음
- 2020년 7월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인 통합된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통합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물리적 시너지 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전남은 인재를 새싹인재, 핵심인재, 산업인재 등 폭넓게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 더불어 인재, 복지, 도정발전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은 고유사업인 장학사업과 평생교육 업무 외에 다양한 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평생교육 업무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중국어체험학습관 등 시설 운영에 더해 탐나는 5060프로젝트 운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대행하고 있음. 인재육성 업무로 도민 외국어 교육사업과 생활밀착 다기능인 양성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 전국의 인재평생교육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부산은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였고, 광주에 인재의 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여 차별화를 꾀함. 부산인재평생교육원의 경우 대학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이룸. 대학중심의 부산은 '부산인재평생교육원 중장기 발전구상'과 '부산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 종합계획' 등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특징을 나타냄. 전남의 경우 인재의 연령 범위를 소아부터 중고생, 대학생, 석박사, 청년, 중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더불어 다른 지역의 장학금이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인데 반해 전남은 희망키움 장학금, 고향정착 희망 장학금,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등 복지개념의 장학금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을 시행해야 함

■ 수평적 통합 미흡

-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은 근대적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랭그랑의 시간적 의미의 수직적 통합을 의미하지만 공간적 의미의 수평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음. 구)인재육성재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체험해외연수’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연계한 ‘멘토링사업’,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학숙’ 등 학업기 소아와 청소년, 청년을 사업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이에 반해 구)평생교육진흥원은 한국 평생학습 프로그램 6진 분류표(KLPCS)에 따라 학령기 소아와 청소년, 청년에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력보완교육’부터 못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 문자해득교육’,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 향상교육’,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까지 전 연령대를 사업 대상으로 설정함
- 결과적으로 수직적 통합 개념에서 인재육성재단의 사업 대상은 평생교육진흥원의 부분 집합에 속함. 개별 조직이었던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됨으로써 사업 대상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졌음. 더불어 구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인 ‘글로벌체험해외연수’와 ‘장학사업’과 ‘장학숙’ 사업은 학교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보조적 사업임
- 구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 영역도 학교 프로그램의 직접적 진흥 사업이 아닌 학교 밖 사회교육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두 기관의 통합은 여전히 학교단일체계 중심의 근대교육체제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평생교육 관점의 수평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음

3. 진흥원의 역할과 기능

■ 인재 개념 재정립

- 인재육성 관련 이론적 검토 결과, 과거 입신출세지향적 개인적 인재관에서 공동체 발전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 인재관으로 변화되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인재 개념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성을 갖춘 도민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주요 역할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으로 구분

- 인재육성 기관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된 전북은 제외한 부산, 울산, 세종, 전남, 제주 등 5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는 크게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으로 구별되어 있음.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원의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주요 업무를 재분류하면 타 인재평생진흥원과 마찬가지로 크게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교육사업은 인재육성사업 기존 사업 가운데 전북인재 인성교육 강화사업과 전북형 뉴딜산업 탐구 지원사업, 인재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 전북장학생 멘토링 사업, 다문화 자녀 전북 이해사업, 도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사업과 평생학습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홍보 사업, 문해교육 활성화사업이 해당됨. 장학사업은 장학기금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장학숙 운영을 포함하고 있음

■ 수혜자에 다른 기능 구분

- 구)전북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과 글로벌 체험해외연수, 서울 및 전주 장학숙 운영 등 사업 실행기능을 수행함. 이에 반해 구 전북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교육과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등 공모사업과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홍보를 통한 평생교육 진흥기능을 담당함
- 통합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수혜대상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 학교교육 보완적 기능에서 평생교육을 통한 주체적 기능 시도

-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글로벌 체험해외연수 프로그램의 대체사업으로 전북인재 인성교육 강화사업과 전북형 뉴딜산업 탐구 지원사업, 전북장학생 멘토링 사업, 다문화 자녀 전북 이해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들 사업은 평생교육분야에서 청소년과 다문화를 대상을 시행하던 사업과 유사한 특성을 지님
- 이들 사업은 공모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기존 평생교육 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 본 연구의 수혜자 FGI에서 학교교육 대상 프로그램을 기관 들은 높은 만족도로 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요구하였음.
- 따라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보조 및 공모사업으로 다양한 기관을 통한 교육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교육기능은 학령인구를 포함한 교육사업의 현안 정책연구 및 개발, 관계자 역량강화, 기관 및 인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요구됨. 더불어 교육사업 관련 정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모 및 보조사업으로 실행함으로써 수혜자와 맞닿아 있는 기관을 통한 교육사업 진흥을 꾀해야 함
- 이를 종합하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학교교육의 학력보완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

육 프로그램의 양성으로 전인교육의 주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장학재원 확충을 통한 장학사업 주체적 기능 강화

- 장학금 지원사업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주요 수혜대상임. 이와 별개로 서울과 전주에서 운영 중인 장학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전문대학교 이상 학력자가 입사대상임으로 대학생이 수혜자임
- 장학사업은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전북 내 14개 시군 장학재단에서도 시행하고 있음. 장학사업에서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 장학재단의 연결성이 부족함. 일반적으로 광역범위 기관은 기초범위 기관의 보조를 통해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특이하게 장학사업은 광역단위와 기초단위가 분절된 사업구조로 개별 운영되어 있음
- 광역과 기초단위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과 대학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장학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광역단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북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사업이 기초단위의 시군 장학사업보다 대상 및 금액에서 불리한 현실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 대학, 시군과 경쟁에서 장학사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장학재원 확충을 통한 장학사업 확대가 필요함. 국내 장학금 기부금 현황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살펴보면 2018년 기준 국내 장학기부금은 대중모금 약 1억 2,400만원과 단체기부금 약 28억원으로 기업을 통한 단체기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함. 따라서 여러 명이 소액을 기부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기업 발굴을 통해 소수 기업이 다액을 기부하는 전략으로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결과적으로 기업의 기부금을 독려하여 장학재원 확충을 통한 장학사업의 주체적 기능을 강화해야 함

차 례

CONTENTS

제1장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3
- 2. 연구내용 및 방법 7

제2장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개념 및 정책현황

- 1. 인재육성 이론적 논의 11
- 2. 인재육성 정책현황 17
- 3. 평생교육 이론적 논의 23
- 4. 평생교육 정책현황 27

제3장 사례검토 및 업무분석

- 1. 시도별 인재육성·평생교육 기관 현황 33
- 2. 인재평생교육진흥원(통합형) 사례 41
- 3.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현황 57
- 4. 시사점 67

제4장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구성원 및 수혜자 인식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개요 73

2. 통합에 따른 과도기적 문제점 75

3. 인재육성 분야 80

4. 평생교육 분야 83

5. 장학숙 분야 88

제5장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역할과 기능 정립

1.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차이 93

2.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94

3.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능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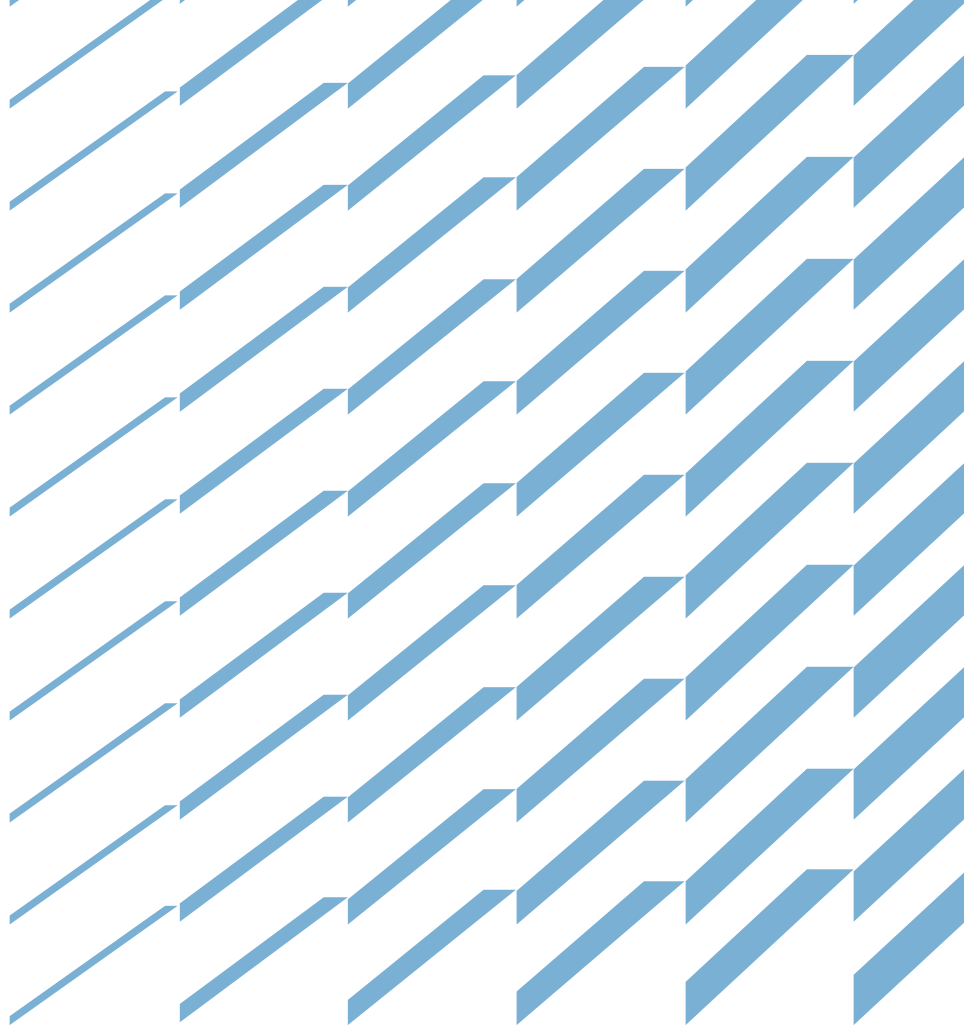
4.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제안 10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111

2. 정책제언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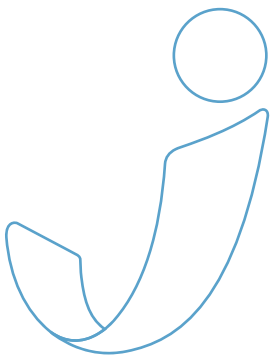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119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 조직 통합에 따른 역할과 기능 재정립 요구

- 1992년 설립인가를 받은 전라북도장학회는 장학숙 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는 장학금 지급 사업을 실시, 2006년에는 장학회 명칭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함
 -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06.12.08제정) : (목적) 우수인재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확보와 인적자원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 (사업) ①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사업 ②글로벌체험(연수)지원 및 유학생 유치사업 ④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멘토링 사업 등 특별지원사업 ⑤산·학·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 육성 사업 ⑥기타 인재육성 관련된 사업 및 수익사업
- 이후 2020년 6월 1일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과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의 통폐합을 통해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현 인재육성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의 개선 등 재단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음
 -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20.02.28 일부개정) : (목적)전라북도의 미래를 열어갈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라북도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아래와 같은 인재육성사업을 실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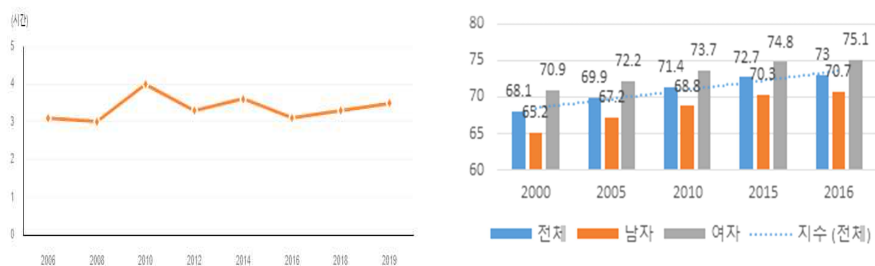
인재육성사업	평생교육사업
①전라북도 우수인재 발굴·육성사업 ②국내외 연수지원 사업 ③장학금 지급 사업 ④유학생유사업 ⑤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관리 ⑥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⑦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인재육성사업	①시·군 및 기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②평생교육기관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③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사업 ④평생교육분야 정책조사 연구 사업 ⑤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 ⑥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범에 따라 인재육성과 평생학습을 연계한 전 생애 걸친 교육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 생애전반에 걸친 지속가능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자체는 기존의 분리·운영되어 진행된 인재육성과 평생학습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 통합을 추진함
 - 부산광역시(2017), 울산광역시(2017), 제주특별자치시(2018), 세종특별자치시(2018)에서는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장학)의 업무를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정책환경 및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조직의 역량 강화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글로벌 창의적 인재 발굴 및 육성이 국가와 지역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지식기반사회의 전환과 혁신주도형 경제단계로의 이행은 고용시장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고용현장 내 창의적 인재유입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동함
 -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장학지원 및 단발성 위주의 사업지원을 넘어 지역인재 양성 및 유출 완화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발굴이 필요해짐
- 국민의 평균수명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 자기개발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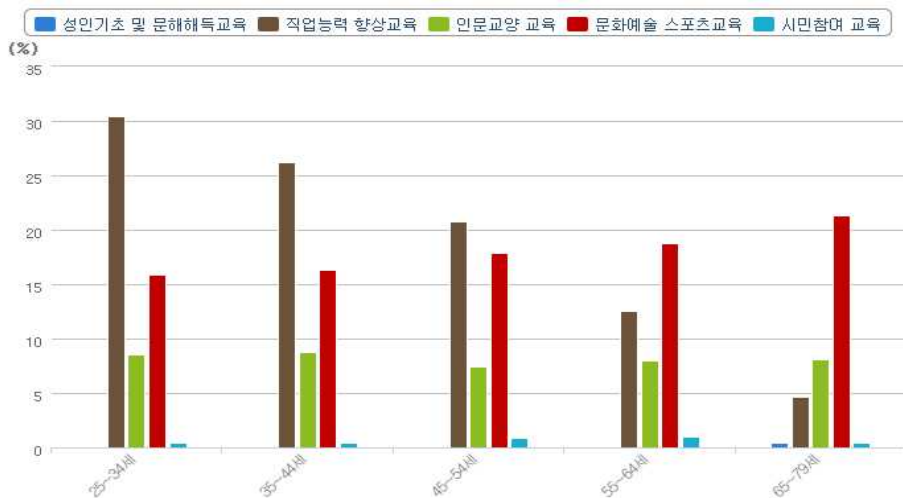
[그림 1-1] 여가시간 및 평균수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참고

- 여가시간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증가라는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 활동 참여 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발전시켜야하는 평생학습사회로 도래함
- 연령에 따라 교육 참여 분야가 나뉘는데 경제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은 직업능력 향상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높은 반면, 노년층으로 갈수록 문화예술 및 스포츠 교육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 세대별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분야의 참여 분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각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을 위한 조직 내 역량강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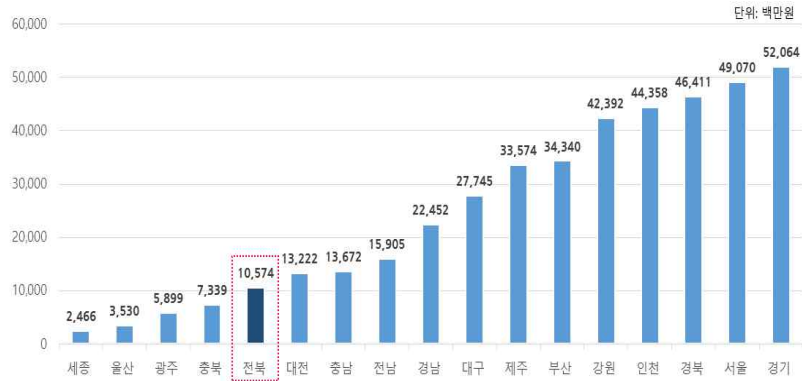
[그림 1-2] 비형식 교육 참여율(2019)



자료 : 통계청(2019),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참고

- 전라북도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의 기능강화가 점차 요구될 것으로 보임
- 국가와 지자체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지원의 확대와 광역단위 평생교육의 역할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라북도의 평생교육 관련 자원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충북 다음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평균금액인 25,000백만원의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임

[그림 1-3] 평생교육 관련 자원 투자현황(3년간 평균)



자료 : 교육부(2018),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참고

나. 연구목적

- 그 동안 전라북도 인재양성과 평생교육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과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양분되어 있었음
- 전라북도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했던 평생교육 진흥업무를 인재육성재단의 고유사업으로 포함시키며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을 확대·개편, 2020년 6월 1일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출범함
- 현재 두 기관은 물리적으로 통합되었지만 역할과 기능 설정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흥원의 업무 개선과 역할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 인재육성과 평생학습은 교육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재육성과 평생학습을 연계하여 전 생애에 걸친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자 함
- 더불어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대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개념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교육부 교과과정 검토를 통한 교육 정책방향 파악
-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관련 정부 정책 및 추진 현황 분석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련 지자체 사례 및 현황 검토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과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분석을 통한 해당 조직의 역할 및 시사점 도출
-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및 사업 수혜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문제점 인식 및 해결방안 검토
- 내용 검토를 통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및 기능 제시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와 자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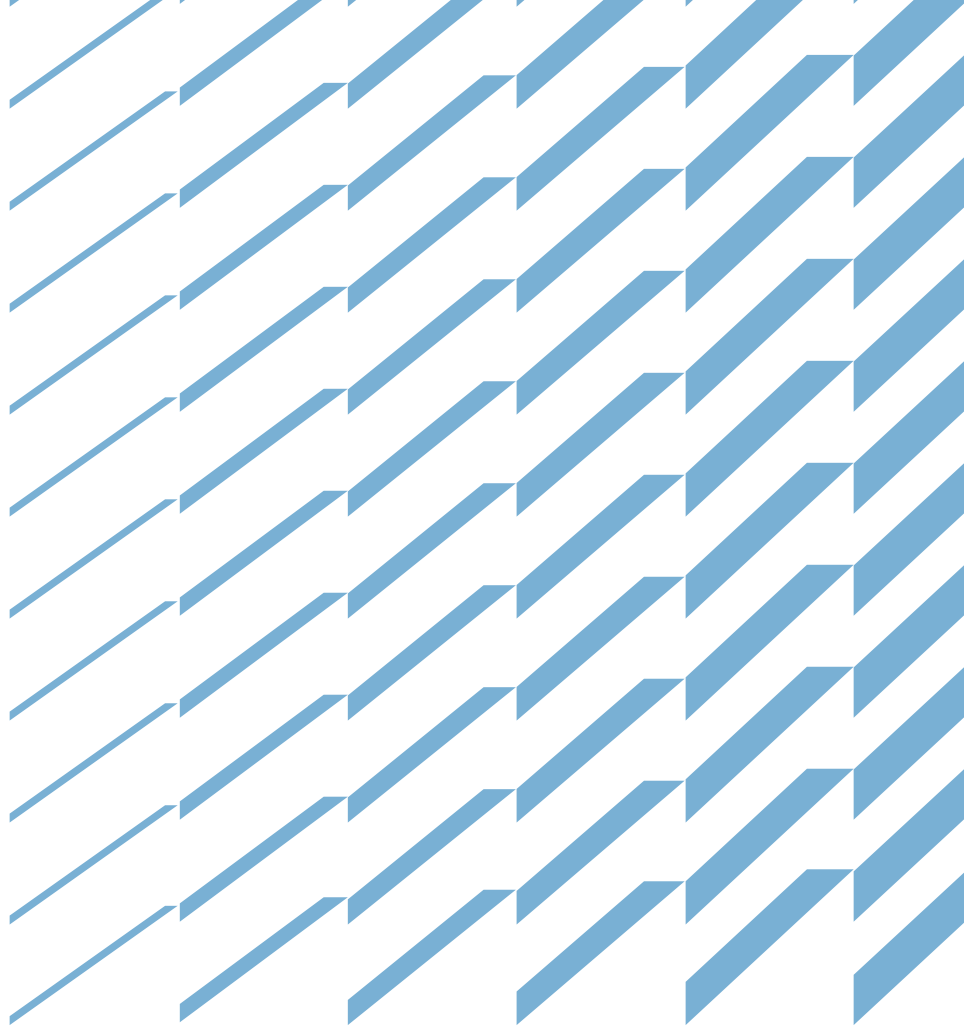
-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의 발전과정과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첫째, 기존에 연구된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의 개념과 관련 내용을 다룬 정책·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함. 둘째, 각각 개념에서 지향하는 역할 및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논문 및 유관 기관의 정책 동향을 살핌
-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의 역할과 한계, 향후 전망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와 관련 법률 및 기본계획과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함
- 역할정립을 위해 기존에 실시한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함

■ 사례검토

- 진흥원의 역할과 주요 기능 및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유사한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타기관의 조직현황 및 추진 사업을 분석함
- 추진 업무에 대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련 유관 기관에 대한 정책 사례들을 살펴봄
- 지역현황 및 정책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도출함

■ FGI 실시 및 분석

- 관계자 및 사업 수혜 대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함
- 조직통합에 따른 조직 운영 방식 및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 의견을 청취함
- 사업 수혜대상자들의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기대역할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의 의견을 청취함
-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정립을 위한 기능 설정에 주요하게 반영함



제 2 장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개념 및 정책현황

1. 인재육성 이론적 논의
2. 인재육성 정책현황
3. 평생교육 이론적 논의
4. 평생교육 정책현황



제 2 장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개념 및 정책현황

1. 인재육성 이론적 논의

가. 인재의 개념

■ “인재” 정의

- ‘인재(人材)’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표준국어대사전) 이는 인간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적 능력을 인정하며 사람에 따라 차등적으로 갖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가능성으로 존재”(이참술, 2020:8)하는 개념으로 누구든지 가꾸어 발전시킨다면 인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인재육성사업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집중지원 하기보다 동등한 교육환경과 다양한 경험 제공을 통해 재능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정치·경제·사회·기술 등의 발전은 인류 역사의 거대 변화를 이끌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와 인류에게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끊임없는 변화를 겪었으며 앞으로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상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줌

[표 2-1] 시대별 인재 구분

시기구분	시대별 특징	인재상
농업혁명시대	농업의 효율성 및 협동능력 중시	육체노동형인재
1·2차 산업혁명시대	기계적 도구들의 발달과 대량생산, 집단노동과 규칙적 작업 수행	수동적·규율화된 인재
3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의 발달	지식역량형 인재
4차 산업혁명시대	초연결·초지능·초융합 시대	전인적 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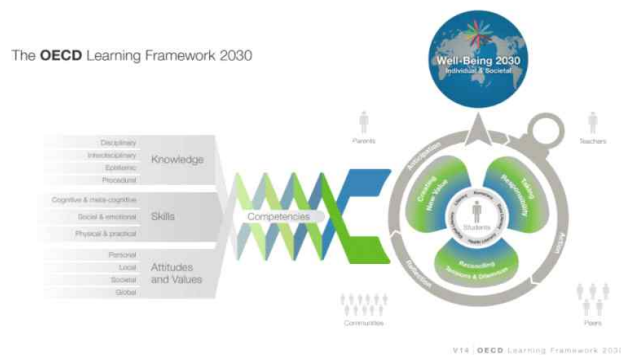
자료 : 이참술(2020),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상 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인간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참고

- 그동안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들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며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노동자로서 역할을 강조하며 이에 부합하는 대상들을 인재로 인정했지만 기술의 다원화와 더불어 창의적 삶의 가치를 지향하게 되면서 인간 능력의 다차원적 이해가 강조됨
-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이웃과 상생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역인재’로 지칭되며, 이들은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과 함께 개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윤준상 외, 2008:11)라고 할 수 있음

■ OECD 인적자본

- OECD는 인재와 유사한 개념인 ‘인적자본(Human capital)’으로 규정하고 “개인, 사회, 경제적 안녕(well-being)의 창출을 촉진하는 개인에게 구현된 지식, 기술, 역량 및 속성¹⁾”으로 정의함
- OECD 인적자본은 개인적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음

[그림 2-1] OECD 교육 2030 학습 프레임워크



1) <https://www.oecd.org/insights/37967294.pdf> 참고

나. 인재관

■ 전통적 인재관

- 인재관은 특정 시대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통용되어진 ‘전통적 인재관’과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현대적 인재관’, 일류대학 및 국가고시 합격 등 개인의 역량 및 자질에 초점을 맞춘 ‘개인적 인재관’과 공동체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등 공공선을 강조한 ‘공동체적 인재관’으로 구분되어짐(장노순, 2003)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과거제도를 통한 인재등용으로 부국강병을 꾀하는 ‘공동체적 인재관’을 견지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고위관료로 입신양명을 꾀하는 ‘개인적 인재관’에 중점을 두었음(장노순, 2003)
- 따라서 과거 개인적 차원의 입신출세지향적 인재관에서 벗어나 공동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지향적 인재관으로 전환되어야 함

[표 2-2] 입신출세적공동체지향 인재관 비교

구분	입신출세지향 인재관	공동체지향적 인재관
지위적 특성	중앙활동, 높은 자리, 큰 부자	지역·재력 불문, 지위막론
역할적 특성	의사결정 독점, 지시와 통제 패거리주의	합리적 의사결정, 설득과 여건조성, 동반자관계 중시
행동 지향	권력지향, 편법불문, 목적지상주의	생명존중, 원칙과 정도 준수, 품위와 절차 중시
역량과 자질	형식 갖추기(성적우수, 시험합격, 일 류대 출신)	내용 갖추기(기본·전문적 시민성)
준비	줄서기, 청탁, 형식적 경력	시민성 함양, 체험과 훈련
사회적 의미와 기능	출세, 가문 영광	자아완성, 공동체발전 및 공공선추구

자료: 장노순(2003), “강원도 지역인재의 발굴과 활용방안” 참고

■ 창의인재

- 전통적 인재관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 시도 교육청은 인성 교육과 더불어 창의성 함양을 주요 교육목표로 설정하였음(김순남 외, 2003)

-
- 이러한 변화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성이 인적자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임(서지연 외, 2011)
 - 한국적 창의인재는 “환경(공동체, 사회, 국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과, 그것에 도움을 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서지연 외, 2011: 368)으로 정의됨
 - 창의인재는 사회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 지식 등을 갖추어야 함(서지연 외, 2011)
 - 결과적으로 창의인재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는 사람임

■ 혁신적 포용인재(교육부)

[그림 2-1] 2021 교육부 정책 추진방향



자료: 교육부(2021), 업무계획 참고

- 교육부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 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선제적 대응과 지속성, 포용성, 자율성, 안전과 건강을 핵심원칙으로 설정함
- 2021년 주요업무에서 교육주체에 따라 초중고교 대상 ‘미래학교 본격 추진’, 대학 중심의 ‘공유협력의 고등교육’,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생애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힘
- 교육부 2021 주요업무 추진방향에서 인재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부분에서 미래의 인재관을 ‘혁신적 포용인재’로 제시함

[그림 2-2] 교육과정 개정 추진방향(안)



자료: 교육부(2021), 교육부 업무계획 참고

-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과정 다양화 및 분권화, 교육의 책무성 강화, 다양한 수업형태 및 교수학습 혁신을 통해 혁신적 포용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힘
- 혁신적 포용국가는 고속성장을 목적으로 한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며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약자와 노동자를 배제한 국가발전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포용국가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두되었음
- ‘혁신적 포용국가’ 또는 ‘포용혁신국가’는 “기득권 세력과 연합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양 집단이 공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촉진하고 고용·복지·교육·과학기술과 같은 핵심적 공공재를 생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성경룡 외 2017:60)고 밝힘
- 교육혁신을 창의적 학습사회로 규정하고 교육 정책의 기조로 ‘모든 아나는 우리의 아

이’를 제시하고, “교육이 모든 아이를 미래 역량을 가진 사람, 즉 학습적, 성찰적, 창의적, 협의적 사람으로 길러내어야”(성경룡 외 2017:192)한다고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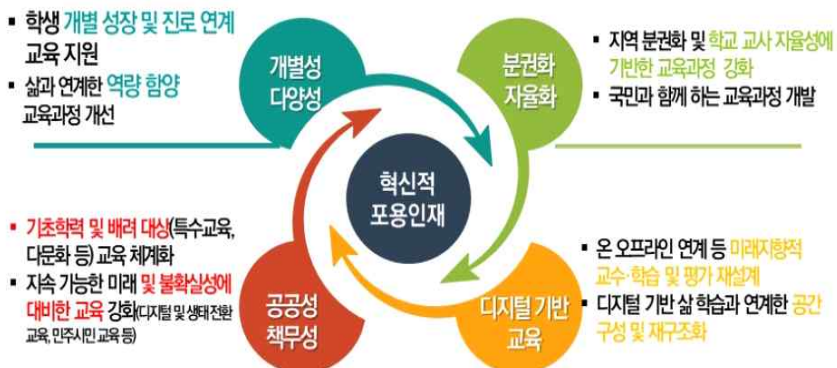
- 혁신적 포용인재의 역량은 시민 역량과 직업 역량으로 구성되며 인간의 본성은 같지만 개인의 자질은 다르기 때문에 시민교육으로 같은 본성을 활성화 시키고, 직업교육으로 다른 자질을 활성화 시켜야 함(성경룡 외, 2017)
-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은 시민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과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개념임

2. 인재육성 정책현황

가. 교육부 혁신적 포용인재 정책

-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의 비전을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으로 설정하였음

[그림 2-3] 2022 개정 교육과정



출처: 교육부(2022. 4. 20),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논의 본격 착수’ 보도자료 참고

- 결과적으로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혁신과 포용을 키워드로 ‘혁신적 포용 인재’로 인재상을 설정하였음

■ 미래 역량 함양, 포용 교육 기반

-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 및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강조하였음
- 이를 위해 기존의 읽기와 쓰기, 셈하기를 바탕으로 언어와 수리, 디지털 소양을 기초 소양으로 규정하고 미래 역량 향상을 강조하였음
 - 역량 함양교육 개선,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 더불어 교육 분권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지원함
 - 교육과정 재구성 범위 확대,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활성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장 선택과목 활성화, 에듀 테크 활용 및 학교 밖 학습경험 지역 연계 인정

■ 맞춤형 교육 기반

- 교육부는 초등과 중등 과정을 역량 함양 중심으로 개선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여 선택 교육과정과 직업교육을 혁신할 계획임

[표 2-3] 초중고 교육과정 개선 안

구분	개선 과제
초등학교	- 학년군별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재구조화 - 학생별 발달수준에 맞춘 놀이연계 학습 및 놀이 공간 지원 등 - 현행 공통 교육과정에서 기초·기본 교육의 토대 위에 지역·마을과 연계한 교과목 신설·선택 활동 운영이 가능한 학교 자율 시간 등 제도 개선
중학교	- 초등 학년군별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마련 - 학생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놀이연계 학습 및 놀이 중심의 공간 혁신 지원 등 - 현행 공통 기초·기본 교육을 토대로 지역과 연계한 자율 시간 등 제도 개선
통합	- 유·초, 초·중, 중·고 연계를 고려한 소규모학교, 통합학교 교육과정 운영 모형(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연계 교육활동 지원, 온라인 수업 등)

자료 : 교육부(2022. 4. 20),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논의 본격 착수' 보도자료 참고

- 더불어 교육부는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와 취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형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편할 예정임
 - 2020년 마이스터고 도입 → 2022년 특성화고 및 일반고 부분도입 → 2025년 전면 시행

[표 2-4] 고교학점제 주요 내용

개선 과제
- 총 이수학점 적정화, 과목구조 개편 및 과목 다양화
- 중-고교 학교급 전환 시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과 이수기준 정립(과목출석률, 학업성취율 충족 시 학점 취득)
- 학점 기반 졸업체제 마련(출석일수 충족 ⇒ 출석+학점 취득)
-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2019 진로선택과목 → 2025 모든 선택과목)
- 미래형 대입제도 논의 착수(2028학년도 대입 적용)

자료 : 교육부(2022. 4. 20),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논의 본격 착수' 보도자료 참고

-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린스마트 학교 등 교육 공간 재구조화를 꾀할 방침임

■ 교육과정 개정 체계 개선

- 2022 교육과정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 주체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에 일반 국민을 더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될 예정임
-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민참여 숙의 및 공청회 등을 인재상과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을 도출될 것으로 기대됨
- 교육과정 개발도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 등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임

■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지원

- 개정되는 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교육부는 미래형 교과서 개발과 교과용도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 개발, 선정, 보급할 계획임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과서 자유발행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또한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교생활 기록부와 대입 제도가 개편되고, 교원 역량 강화 제도 마련 및 삶과 학습 연계 학교도 조성될 예정임

[그림 2-4]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일정(안)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교육 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21.하)	개정 교육과정 고시('22.하)	교육과정 후속지원 (해설서, 평가기준 등)	초등학교 적용 시작	중학교·고등학교 적용 시작
고교 학점제	마이스터고 적용 ('20.~)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일부 도입	→		전체 고교 본격 시행
교과서	기초연구추진 국정, 검정 체제	교과용도서 구분고시('22.하)	교과용 도서개발	초등학교 보급 시작	중학교·고등학교 보급 시작
대입 체제	대입 제도 개편 방안 검토			2028학년도 대입방 안 발표('24.상)	

자료 : 교육부(2022. 4. 20),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논의 본격 착수' 보도자료 참고

나. 해외 인재교육 사례

-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교육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던 방식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함
- 주요 교육 선진국들은 다양한 잠재력 개발을 위한 선택권 강화와 다양한 학교유형과 교육훈련 기회 보장 등 교육평등으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꾀하고 있음(서지연 외, 2011)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세분화된 전공들 간 융합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 방식을 채택하여 다른 사람 또는 문화를 받아들여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서지연 외, 2011)

[표 2-5] 교육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교육 정책의 특징

구분	개선 과제
미국	학생의 잠재력 개발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개인 능력을 창의적으로 계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체계 개혁 및 추진
핀란드	창의성, 비판적 사고, 자기 신뢰, 사회적 소통을 중시하고, 함께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 및 협동하는 자세 유지, 평생교육 제도화
덴마크	모든 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교육시킨다는 취지하에 평생교육 추진,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프로그램 추구
영국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개혁 지원정책을 위한 학교와 교육연구기관 및 평가기관의 연계체제 구축, 일선학교의 자발적 교육과정 개선유도
이스라엘	평준화와 수월성 위주의 교육정책 병행, 잠재력 조기발견을 위한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개인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간학문적 접근 등 추진
싱가포르	정부 중심의 계열화 교육제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특성화학교 운영, 최근에는 통합 교육 및 계열 간 이동 확대 등 교육의 구조개혁 시행
독일	수준별 교육, 선택교육과정개설, 보충학습, 촉진학습, 심화학습 등 개별화 교육을 통해 학생 능력발휘 유도 및 뒤처지는 학생에게도 성취동기 부여
호주	인간존중, 민주주의, 개인행복 추구 등 호주인의 가치관을 기본으로 개인의 취향과 차이를 인정하고, 토론과 에세이, 실습과 경험 중심으로 교육
OECD	DeSeCo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사회에 순기능적으로 기여하는 생애핵심역량 규명

자료: 서지연 외(2011), "창의인재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p.361. 참고

■ 홍콩, 역량 강화교육

- 2001년 홍콩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배움을 위한 학습(Learning to Learn)'을 비전

으로 ‘중국어와 영어 등 3개 국어 구사’, ‘충분한 지식습득으로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 및 전 세계적 이슈 이해’, ‘풍부한 정보를 갖춘 책임감 있는 시민’, ‘문화와 관점의 다양성 존중 및 독립된 인격체로서 비판적 사고와 성찰’, ‘정보기술과 일반기술을 습득한 평생학습자’, ‘자신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건강한 생활습관’ 등 7대 학습목표를 설정함(최수진 외, 2019)

- 홍콩의 역량 강화교육은 학생이 주체성과 책임의식으로 학습에 임하고, 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료 교사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규정함(최수진 외, 2019)

■ 핀란드, 역량 강화교육

- 2014년 개정된 핀란드 국가 교육과정은 학습방법(How to learn)에 중점을 두고 첫째 학습 개념의 제고, 둘째 학교문화 및 학교와 지역사회 간 관계 제고, 셋째 교과역할, 목적, 내용 제고에 초점을 맞춤(임유나, 2017)
- 핀란드 교육에서 일반역량은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의지 등의 총체이자 서로 다른 학문의 지식과 기능을 연결하고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FNBE, 2016, 33: 임유나, 2017 재인용) 정의되며 “사고와 학습 능력 (Thinking and learning to learn), 문화적 역량 및 상호작용과 자기표현(Cultural competence, interaction and self-expression), 자기 자신과 생활의 관리(Taking care of oneself and managing daily life), 멀티 리터러시(Multiliteracy), ICT 역량 (ICT competence), 직업 생활 역량과 기업가 정신(Working life competence and entrepreneurship), 참여 및 소속,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Participation, involvement and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임유나, 2017:154-155)으로 구성됨
- 핀란드는 이러한 일곱 가지 일반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학습을 독려하는 학습 공동체(Learning community)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에 더불어 주제중심, 현장중심의 ‘다학문적 학습 모듈’을 도입하였음(임유나, 2017)
-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매년 하나 이상 참여해야 하는 다학문적 학습 모듈은 “학생과 교사의 활동 동기와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모듈의 주제는 지역과 학교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 및 학교 단위에서 계획하도록 하였으며, 그 계획에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실행, 모니터링 등에 관한 모든 측면들을 포함”(FNBE, 2016, 56: 임유나, 2017:160 재인용)하고 있음

3. 평생교육 이론적 논의

가. 평생교육의 개념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1항(2004. 1. 28 개정)에서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됨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이해

- 1960년대 세계 교육의 조류는 사회교육 중심이었으나 1965년 랑그랑이 <평생교육론>을 통해 평생교육이라는 교육용어를 제시하였고 이후 1972년에는 「존재를 위한 학습(Learning to Be)」, 1973년 OECD의 「리커런트 교육(Recurrent Education)」 등이 연달아 간행되면서 평생학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며 평생교육의 시대에서 평생학습의 시대로의 이행과정을 보여줌(한상철 2016:9)
-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이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개념을 비교해보면 “평생학습은 전생애적자기주도성장의 행위와 실천으로서 개인의 삶의 영역에 있어 지식과 능력을 개발을 밀하며 평생교육은 인간의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효과를 증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도적인 활동과 조건”을 말함(신용주, 2015)
- 평생교육에서 “교육”이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주체성을 담고 있는 “학습”으로의 전환이 제기되며 평생학습이 등장함

평생교육	평생학습
교육자 중심	학습자 중심
조직적·구조적	우발적·무형식적
강요	자유
학습에 대한 환경정비와 다양한 지원활동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활동

자료: 평생학습타임즈 “성공적인 100세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18.09.12)

- 개념적 정의를 의미를 정리해보면 평생교육은 학습권 고취 및 평생학습사회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활동을 의미하며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수평적 교육을 통한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지향적 인간 지향을 추구한다는 점으로 평생교육(방법)지원을 통한 평생학습(목적)사회의 전환과 평생학습 활성화로 정리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연구에서는 관련 조직의 기능 설정 및 활성화 방안 제시가 핵심과제이며 관련 상위법과 계획 등에서 평생교육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평생교육으로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 동법 제2조 2항에서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과 법인, 단체와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모든 평생직업교육 학원, 기타 평생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법인, 단체 등 폭넓게 명시됨
- 평생교육은 “①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일정한 평생교육 관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한다.” 이념(평생교육법 제4조)을 따르고 있음
-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세부 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에 제시됨. 제시된 분류체계는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사업 진흥과 더불어 평생학습 경험 및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임

[표 2-6]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

주제구분	지침	
학력보완	지침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및 학력보완 프로그램
	일반적 하위분류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예	검정고시, 보습 및 입시관련 프로그램, 학점은행 프로그램, 시간제등록 강좌 등
성인기초/ 문자해득	지침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학력보완과 관련된 교과과정 프로그램은 제외)
	일반적 하위분류	문자해득프로그램, 기초생활기술프로그램, 문해학습계좌프로그램
	예	한글교실, 문해교실, 이주여성 문해교육,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다문화교실, 기초생활을 위한 산수교실, 문해자를 위한 인터넷 정보화 교육 등

직업능력 향상	지침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일반적 하위분류	직업준비프로그램, 자격인증프로그램, 현직직무역량프로그램
	예	인력양성과정, 창업준비과정, 취업준비과정, 외국어자격인증과정, 지도자과정, 자격증취득과정(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토익·토플과정, OA과정(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한글 등), CAD, JAVA, 프로그래밍과정, 공무원대비과정, 직무연수, 직무수행관련과정, 평생교육사연수 등
인문교양	지침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겸비하고 교양증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학력취득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
	일반적 하위분류	건강심성프로그램, 기능적 소양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프로그램
	예	문학, 철학, 역사, 어문학관련(생활외국어 등), 예절교육, 보건교육, 식생활교육, 생활의료교육, 풍수지리, 가족역할수행교육, 부모교육, 생활 요리, 각종 청소년상담관련교육, 성교육, 유아교육프로그램(유치원교육과정(7차)의 사회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건강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지침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취미, 여가활동, 소질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일반적 하위분류	레저생활스포츠프로그램, 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 문화예술향상프로그램
	예	미술, 음악, 무용, 건강, 스포츠, 여행, 연극, 영화, 사진, 건축, 직장인을 위한 취미요리, 예쁜 글쓰기, 유아교육프로그램(유치원교육과정(7차)의 표현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 요가교실 등
시민참여	지침	현대 민주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정신 증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일반적 하위분류	시민책무성프로그램, 시민리더역량프로그램, 시민참여활동프로그램
	예	공동체의식교육, 소비자의식교육, 시민의식교육, 지역리더양성, 인권교육, 주민자치교육, 환경교육, 정치교육, 자원봉사교육, 선거부패방지교육, 양성평등과정 등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9), 「평생교육통계 통계정보보고서」 참고

- 분류체계는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로 구분하여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영역별 위계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들의 지원 목적과 세부 사업들을 명시하여 포함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있음

나. 평생교육의 학술적 개념

- 인간은 태어나서 전 생애에 걸쳐 죽을 때까지 새로운 지식을 쌓고, 경험을 축적하게 됨. 특히 지식기반 사회에서 학습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필수적 삶의 일부 행위임
- 현대의 교육 개념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근대 교육체제에서 학습하는 인간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로 대표되는 지식의 수용력과 정보의 수집 및 공유 능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평생학습사회’로 재구조화되고 있음(김진덕 외, 2009)
- 교육적 관점에서 평생교육의 최초의 정의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교육의 과정은 통합적인 구조가 필요한 과정이며, 그 원리는 ‘평생교육’으로 그를 위해서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교육 통합이 필요하다”(Lengrand, 1968: 고승한 외, 2010: 5 재인용)
- 랭그랑(Lengrand)의 수직적 통합(Vertical articulation)은 시간적 의미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거친 교육으로 유아, 소아,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등 성장과 쇠락해져가는 인생의 발달단계별 교육의 연속적인 과정임(고승한 외, 2010)
- 이에 반해 수평적 통합(Horizontal collaboration)은 공간적 의미로 가정과 학교, 사회 등 다양한 교육 형태의 협력과 제휴를 통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육 체계임(고승한 외, 2010)
- 이러한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을 통해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교양교육, 전문교육 등 모든 교육내용이 통합됨을 의미함(고승한 외, 2010)
- OECD에 따르면 학습의 경제와 사회적 성과는 서로 상호작용 관계이며, 특히 학습은 사회적 성과의 하위 카테고리인 신뢰와 관용, 자원봉사, 의심의식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김진덕 외, 2009)
- 평생교육의 학술적 개념에서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은 랭그랑의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체계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음

4. 평생교육 정책현황

■ 평생교육의 법률적 논의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였으며, 초등학생 부모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를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도 포함함

대한민국 헌법(1987. 10. 29. 전부개정)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을 학습권으로 명시되어 있음
 - 교육기본법(2007. 12. 21 전문개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한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
 - 평생교육법(2008. 2. 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조례

- 전라북도는 2011년 12월 9일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 2월 일부개정을 시행함
- 평생교육의 목적과 정의는 「평생교육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제 4조(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근거하여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과의 협의 진행을 동시에 명시하고 있음

- 그 밖에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에서는 평생교육 기관의 설치·운영과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 근거와 제6조(학습자 안전보험가입)가 명시되어 있으며 제7조~제16조의 조례내용은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

- 「헌법」 제31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 하며 「평생교육법」 제9조(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수립을 명시하고 있음
- 평생교육은 일자리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 성장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의 핵심을 인재(사람)로 인지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평생교육은 “성장-고용-복지”라는 황금삼각형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확실한 촉매제로 노동의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넘어 개인의 자아실현 및 능력 개발까지도 포함하며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근본적인 방법임을 명시함
- (추진전략)사람(학습자)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며 학습의 지속성, 체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 인적자본 투자 관점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동반 번영 지향,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제도간 연계를 위한 정책 추진을 제시함

[표 2-7] 연차별 기본계획 분석

구분	내용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 (1차/2002~2006)	(비전)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 (전략)정보화/지역화/파트너십/학습자 중심 (목적)교육복지국가(Eduetopia) 인적자원강국 건설 평생교육 정책 초기에는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참여자들의 학습참여 여율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교육 직업기술교육과 민주시민교 육이 주요 교육 지원 대상임
2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08~2012)	(비전)배우는 즐거움, 일구어 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구현 기쁨학습·미래학습·통합학습 (전략)생애단계별맞춤형 평생학습 전략/평생학습네트워크 전략 (목적)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창조적 지식근로자 육성/평생학습을 통한 관 용 및 포용사회 실현/평생학습 기반 구축 생활시간과 생애사적 기간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생애단계별 평생교육을 제안하며 평생교육지원의 다양성을 추구했으며 지원추진체제의 개편(국가/ 시도/시군구 단위)을 통한 정책 기반 조성을 추진함
3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13~2017)	(비전)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전략)일-학습-능력연계/국가재정지원 확충/생애단계별·계층별 맞춤형 지 원/협업과 네트워크 강화 (목적)창조학습을 주도하는 국민/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함께 학습하는 지역공동체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정책지원 확대의 요구가 반영됨. 또한 학습참여의 제약을 최소화 하며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시스템 확충
4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18~2022)	(비전)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 (전략)학습자 중심/자발적 참여 확대/개인과 사회의 동반변영/기관 및 제 도 간 연계 및 협력 강화 평생학습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이해하며 전국민적 평생학습 참여를 지 향하며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을 통한 참여확대와 더불어 사회참여 기회 마련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확대함

자료: 연차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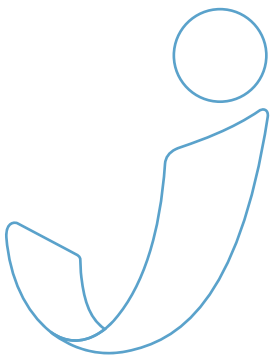
-
- 현재까지 수립된 기본계획 분석을 통한 평생교육지원정책의 변화를 보면 평생교육의 정책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평생학습의 중요성 환기와 더불어 참여자들의 학습참여율 제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함
 - 이후 수요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으며 평생교육 추진체계 세분화를 통해 정책기반을 강화함
 - 평생교육이 초기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교육을 통한 근로 참여 촉진을 중시하며 다소 협소한 수준에서 정책을 진행했지만 점차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며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시작함
 - 특히 다양한 사회구성체(국가, 지자체, 기업, 기관, 공동체, 개인)참여를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참여가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참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함



제 3 장

사례검토 및 업무분석

1. 시도별 인재육성 · 평생교육 기관 현황
2. 인재평생교육진흥원(통합형) 사례
3.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현황
4. 시사점



제3장 사례검토 및 업무분석

1. 시도별 인재육성·평생교육 기관 현황

- 전라북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설치된 인재육성(장학재단 포함)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8개 기관에서 분리된 형태로 운영 중임
- 경기도와 경북, 경남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만 설치됨. 광역단위 장학재단 또는 인재육성재단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지 않고, 시군별로 인재육성 재단이 설립되어 장학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부산시와 울산시, 세종시, 전남도, 제주도 등 5개 시도는 통합된 형태로 운영 중에 있음

가. 분리형

구분	기관명	설립연도	조직구성	조직 세부 현황	
1	서울	서울장학재단	2009	1국 2부	사무국, 경영지원부, 사업운영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2015	2국 8팀 1센터	기획조정국, 시민대학교, 경영지원팀, 정책홍보팀, 사업팀, 청년팀, 모두의학교팀, 시민대학운영팀, 시민대학사업팀, 시민대학사업팀, 동남권운영팀, 문해교육센터	
2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인재 육성장학재단	2013	1국	사무국 (대구시교육청 직원 겸임)
	대구평생교육진흥원	2012	2팀 1센터	정책연구팀, 사업운영팀, 문해교육센터	
3	인천	인천인재육성재단	2013	1국	장학사무국
	인천평생교육진흥원	2013	2팀	총무팀, 평생교육팀	
4	광주	빛고을장학재단	2002	-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2013	1처 3실	사무처, 기획조정실, 전략사업실, 경영지원실	
5	대전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2009	1국	사무국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1	1처 5부 1센터	사무처,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정책연구부, 평생학습부, 시민대학부, 대전문해교육센터	
6	강원	강원인재육성재단	2001	1처 3팀	사무처, 총무팀, 인재육성팀, 도봉학사팀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2014	1국 2팀	사무국, 정책기획팀, 사업운영팀	
7	충북	충북인재양성재단	2008	1국 2팀	사무국, 총무팀, 사업팀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2011	1처 2팀	사무처, 교육연수팀, 정책기획팀	
8	충남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2012 (충남장학회 +충남학사)	1실 2관	경영기획실(정책기획, 인재육성), 충남학사 대전관(학사운영), 충남학사 서울관(총무팀, 학생지원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2012	4팀	기획경영실, 정책협력팀, 평생학습팀, 시민대학팀	

■ 인재육성

-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이 양분된 분리형에 인재육성의 경우, 장학재단 또는 인재육성재단 명칭을 사용함
- 서울시와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의 경우 장학재단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인천시와 강원도, 충청도, 충남도의 경우 인재육성재단 명칭을 사용함
- 장학재단,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대부분 1국, 1처, 1실 체제로 단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때문에 명칭은 다르지만 장학재단, 인재육성재단은 고유 업무인 장학사업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평생교육

- 분리형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매우 작은 규모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 2국, 대구시와 인천시 2팀, 광주시와 대전시, 충청도 1처, 강원도 1국, 충남도 4팀
- 분리형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규모를 감안할 때 매우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유추됨

■ 시사점

- 분리형을 살펴본 결과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양분된 체제로 업무만을 추지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중복성 등 정책과 예산이 효율성을 꺾하지 못하고 있음
- 작은 규모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유 업무만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나. 단독형

구분	기관명	설립연도	조직구성	조직 세부 현황
1	경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1	4본부 11팀	경영본부(기획홍보, 경영지원), 평생교육본부(평생교육1, 평생교육2, 콘텐츠개발), 민주시민교육본부(민주시민교육1, 민주시민교육2),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본부(행정지원, 교육운영),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행정지원, 교육운영)/경기도 송파학사 포함
2	경북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2009	1처 2팀 1센터	사무처, 기획홍보팀, 사업운영팀,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
3	경남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2015	1국 2팀	사무국, 정책기획팀, 사업운영팀

■ 경기도

-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재육성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평생교육 업무만 수행하는 단독형의 경우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됨
-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4본부 11개 팀에서 매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 경영본부(기획홍보, 경영지원), 평생교육본부(평생교육1, 평생교육2, 콘텐츠개발), 민주시민교육본부(민주시민교육1, 민주시민교육2),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본부(행정지원, 교육운영),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행정지원, 교육운영)/경기도 송파학사 포함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평생교육 진흥업무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본부를 통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더불어 파주와 양평의 본부에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운영함으로써 교육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송파학사를 운영함으로써 인재육성 업무를 겸하고 있음

■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 경기도와 대조적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은 분리형과 유사하게 매우 소극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1처.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1국으로 매우 유사하게 운영됨
 - 경상북도 사무처, 기획홍보팀, 사업운영팀과 경상남도 사무국, 정책기획팀, 사업운영팀으로 두 자치단체는 명칭은 다르지만 유사한 조직구조를 지님
- 다만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시사점

- 인재육성 담당 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단독형의 경우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됨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대규모 조직으로 평생교육 진흥뿐만 아니라 직접 교육업무를 추진하고 민주교육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재육성업무를 겸함
- 이에 반해 자치단체의 의지가 약한 경북과 경남은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함

다. 통합형

구분	기관명	설립연도	조직구성	조직 세부 현황
1	부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17	1실 1부 3단	기획경영실, 신뢰경영부, 평생교육단, 인재육성단, 미래청년단
2	울산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17	2국 1센터	경영기획실, 평생교육부, 인재육성부
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2018	1국 3팀	사무국, 경영기획팀, 인재육성팀, 평생교육팀
4	전남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0	1처 3팀	사무처, 기획운영팀, 인재육성팀, 평생교육팀
5	제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18	1본부 4부	운영부, 전략기획부, 평생학습부 (제주시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중국어체험학습관), 인재육성부

- 최근 들어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업무가 통화되는 추세임
- 2017년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2018년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0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2021년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됨
- 세종시는 2018년 세종인재육성평생진흥원을 출범함
- 통합형의 경우 대부분 행정 부서와 인재육성 부서, 평생교육 부서, 기획부서로 구분되어 있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행정과 인재육성, 평생교육 부서에 더해 미래청년단 부서를 운영하며 청년 정책을 더불어 수행하고 있음
- 제주의 경우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와 중국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

■ 시사점

- 최근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을 결합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물리적 통합을 이뤘지만 개별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부산은 청년 업무를 특화시켰고, 제주는 자기주도 학습을 독자사업으로 펼침

라. 지원조례 현황

- 지역별 인재육성/평생교육 기관 설립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장학 및 인재육성 조례 제정과 평생교육 조례 제정 현황을 나누어 정리함

[표 3-1] 인재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조례 명시 사업	제정일자
1	서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학금 지원, 인재육성 지원 사업	2008.05
2	대구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장학금 조성 및 장학금 지원, 우수인재육성 지원, 우수인재육성 지원, 저소득층학생 지원	2013.06
3	인천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 지정기탁, 기부, 교육 등 멘토링 사업,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 취업·직업교육, 문화·체육 등 평생교육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장학 및 평생육사업	2010.11
4	광주 광주광역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장학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2002.11
5	대전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인재양성 장학 지원, 경제소외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 장학사업 발전을 위한 위탁 사업	2008.12
6	강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장학시설 설치 및 운영,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급, 미래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2012.11
7	충북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충북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 사업,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2008.01
8	충남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장학금 지급, 학생기숙사 운영 및 설치, 취업·직업교육, 문화·체육 등 평생 교육사업, 인적자원 개발·관리 및 연구 지원 사업, 정부 및 자치단체 위탁 장학 교육사업	2011.07
9	부산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대박 및 지역인재육성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 및 인재육성기금 조성	2015.07

[표 3-2] 장학재단/인재육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조례 명시 사업	제정일자
1	울산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제공, 평생교육 사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장학사업 발굴,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2017.04
2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장학금 지원사업,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평생교육 종사자 정보 수집 및 제공	2018.02
3	전남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남의 경우 인재육성사업과 평생교육사업 관련 사업 내용을 분리하여 명시하고 있음 (인재육성)장학생 선발 및 지급,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 사업,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집중육성사업, 글로벌 인재 육성 학생어학능력 향상사업, 교육운영여건 개선사업,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 (평생교육)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통계 구축 및 정책개발, 문해교육 사업 운영	2008.11
4	제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학생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 양성을 위한 사업,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설팅·프로그램 개발·연구·조사 및 평가, 장애인·이주민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 관련 사업, 학습계좌제 운영	2017.05

2. 인재평생교육진흥원(통합형) 사례

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슬로건

지렛대 혁신경영으로 트라이앵글 전략사업을 완수한다!

비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및 인재육성 디자인 그룹

경영목표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수준의 평생학습도시 구축

지속가능한 융합형 인재육성도시 구축

희망의 로드맵이 있는 청년활력도시 구축

추진전략



정책과제

- 1 에듀테크를 활용한 평생학습 콘텐츠를 타워 구축
- 2 지역산업-지역사회 연계형 대학인재 육성 지원
- 3 청년 주도 사회혁신을 위한 청년지원사업 추진
- 4 대외신인도 향상 및 신바람 직장문화 조성

■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 (설립목적) 부산지역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전담기관으로 역할 강화와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주요업무) 부산의 경우 자체사업 15개(880,000천원), 수탁사업 19개(3,766,000천원), 공모사업 7개(660,028천원) 총 41개 사업을 실시함
- 추진 사업에 따라 크게 평생교육, 인재육성, 평생교육+인재육성, 조직운영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평생교육사업은 부산의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 진흥원의 역할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부산의 경우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하며 비장애인과의 평생교육 웨어링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세대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학습 공동체 지원 사업 및 평생학습 컨설팅을 진행함
- 인재육성사업에서는 지역 대학생 대상 경쟁력 제고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과 재육성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신기술·산업 분양 전문교육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및 창직 활성화 교육을 실시함
- 평생교육과 인재육성 사업의 기초자료 및 사업 실행의 근거마련을 위해 지역인재 육성 전략 수립과 평생교육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함. 또한 지역인재 현황 및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해 해당 대상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조직 운영효율화 도모를 위한 경영혁신 방법으로 조직개편을 실시(2019)하였으며 재정관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공모 활성화 사업을 실시함
- 또한 다양한 계층에서 요구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관계 기관과 단체 등의 업무협약 및 홍보를 진행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감
- 시민들의 학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 및 평생교육정보망 활용한 정보제공을 진행함

[표 3-3] 추진사업현황

구분		사업명
평생교육	평생학습 생태계구축	①부산시민대학활성화사업 ②학습공동체 구축
	평생학습 활성화	①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사업 ②광역문해교육활성화사업
	평생학습문화 진흥 및 주민참여 활성화	①평생교육 One-Stop 지원 ②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사전직무교육 ③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인재육성	지역대학 인재육성기관 지원	①BB21플러스(Brain Busan 21+) ②시대학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③지역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대학수업지원 프로젝트 ④대학의 지역사회 상생협력지원 ⑤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⑥대학플랫폼 구축운영 ⑦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 운영
	창의인재육성 지원	①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양성 ②대학생학술대회(아이디어경진대회)개최 ③인공지능 인재양성지원 ④지역사회활동단 'SAM' ⑤국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⑥4차산업혁명 대응 메이커 교육 ⑦메이커 스튜디오 운영 ⑧부산지역 무한상상실거점센터운영 ⑨부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⑩부산형 OK일자리 지원사업 ⑪글로벌이커머스 청년 취·창업지원 ⑫청년리빙랩 ⑬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⑭부산청년학교
평생교육 + 인재육성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①지역인재 육성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 ②지역인재 실태조사 및 분석 ③부산지역 외국인유학생 실태조사 ④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조직 운영 효율화	일하는 조직문화조성	전문성 강화 및 경쟁력 있는 기한 운영을 위한 기관개편 방안 마련 인권경영 체계구축, 사회공헌활동 다양화 추진 등
	재정관리 건전성 제고	주민참여예산 공모 활성화 사업예산 성과관리 통한 재정운용 기능 강화 등
	기관 대외홍보 강화	평생학습정보접근 온라인 정보망 운영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및 평생교육 홍보 및 협력 체계 구축 지역 네트워크 행사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등 찾아가는 평생학습 정보 제공 등

■ 기구 및 인력

- 1실(기획경영실), 1부(신뢰경영부), 3단(평생교육단, 인재육성단, 미래청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22명의 인력으로 구성됨

- 정원의 인력 3명: 기간제근로자 2명(중장년기술창업센터 사업운영지원인력), 수탁사업 계약직 근로자 1명

[표 3-4]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력 현황

(정원/현원)							
구분	계	원장	1급	2급	3급	4급	5-6급
총계	22/22	1/1	1/1	2/0	5/4	5/4	8/12

[그림 3-1]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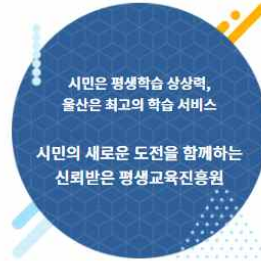


[표 3-5] 부서별 담당업무

부서	주요업무 및 운영조직	
기획경영실	재단업무 개발 및 기획총괄, 대내외 교류협력	
신뢰경영부	법무일반, 정보자료센터, 경영, 계약, 회계, 평생교육정보망 운영 등	사회적가치위원회
평생교육단	평생교육협력체계활성화,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부산시민대학 활성화, 장애인평생교육거점사업,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문해교육센터 운영 등	16개구·군 평생교육원, 23개 대학평생교육원, 부산평생교육협회, 부산평생교육사협회, 부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 부산평생학습포럼
인재육성단	시·대학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부산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 운영, 지역인재 실태조사 및 분석, 지역인재 육성전략 수립 및 정책개발, 언택트산업 청년일자리육성사업, 지역대학 플랫폼 구축운영 등	부산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 부산 대학인재유치플랫폼
미래청년단	청년인재양성팀 업무 총괄, 부산청년센터운영, 메이커교육, 부산청년리빙랩, 청년 커뮤니티활동지원, 청년스타트업 도약 창업교육 지원 등	부산청년센터, 부산청년리빙랩, 만들숲

나.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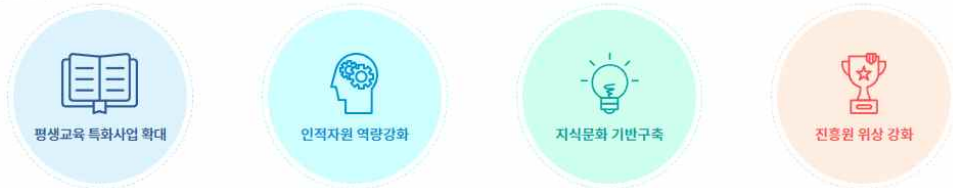
■ 핵심가치



■ 목표



■ 추진전략



■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 (설립목적)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실시함
- 2017년 9월 울산인재육성재단 법인이 설립되었고 2020년 1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장학과 평생교육을 합친 통합법인이 새롭게 출범함
- (주요업무) 울산은 장학금 지원사업을 인재육성 사업의 중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관련 사업은 2020년 기준 총 26개 사업을 진행함(코로나19로 2개 사업 이월)

○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69명, 45,914천원
- 대학생 727명, 833,598천원

[표 3-6] 추진사업 현황

구분	장학금명	실적		비고
	계	796	879,512	
고등학생	울산사랑장학금	69	45,914	교육감 추천
	울산인재장학금	45	86,008	대학신입생(수능성적)
대학생	드림장학금	185	250,000	성적우수 대학생
	희망장학금	218	198,735	기초수급·차상위·다문화등
	다자녀장학금	179	248,855	다자녀가구(3인 이상)
	생활장학금	100	50,000	기초수급·차상위·다문화 등 (울산지역 대학생)

자료: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2021) 「2020년 결산보고서」 참고

추진목표	추진사업	
활동적 시민양성	①울산 시민학사 운영 ②우리동네 지식강사 양성활동 지원사업 ③소외계층 디딤돌 평생학습 역량개발사업 ④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⑤장애인평생교육 관계자 양성·활동 지원사업 ⑥평생교육 관계자 직무교육	
평생학습 링크체계 구축	①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②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운영 ③평생교육 네트워크 동행사업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①구·군 평생학습 지역특화 벨트사업 ②신중년 평생교육 지원사업 ③평생교육 MAKER 교육 운영 ④온라인 생활과학지식 활성화 사업	
평생학습 성과브랜드	①2020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②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③울산 아카이브 사업 ④울산 평생교육 소식지 발간	⑤2020년 울산 평생학습 포럼 개최 ⑥울산 평생교육 통합성과 보고회 ⑦제7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개최(미개최) ⑧제7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참가(미개최)
울산문해 교육센터	①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②학력인정 문해교육 지원사업 ③울산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④울산 문해교육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⑤국비 문해교육 사업	

자료: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2021) 「2020년 결산보고서」 참고

■ 기구 및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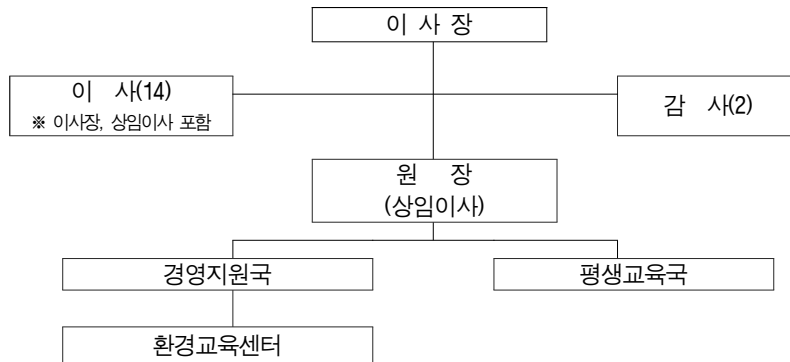
- 2국(경영지원국, 평생교육국), 1센터(환경교육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12명의 인력으로 구성됨

- 부설센터는 울산환경교육센터, 울산문해교육센터,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표 3-7]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력 현황

								(현원)
구분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총계 (행정직)	12	1	1	2	3	4	1	

[표 3-8]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표 3-9] 부서별 담당업무

부서	주요업무
경영기획실	진흥원 중·장기 계획수립, 울산시민학사 운영, 평생교육동행 협력체계 구축 사업,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업 등
인재육성부	장학업무 기획·조정 관리, 신중년평생학습 지원사업, 울산평생교육 기록화 사업, 소식지 발간 등
평생교육부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운영, 소외계층 평생학습 역량개발 사업,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연구 컨설팅,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평생교육 메이커 교육 운영, 울산문해교육센터 운영 등
환경교육센터	기후위기 대응 맞춤형 환경교육,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등
문해교육센터	문해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한글교육 시화전 시상식 운영, 성인한글문해교육 포럼 개최 등
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센터 사업예산 및 행정업무, 일반시민, 취약계층(노년, 다문화)교육 운영, 학생 및 취약계층(장애인, 지역아동센터)교육 운영 등

다.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 (설립목적)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세종시 시책과 연계한 인재육성, 평생교육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설립됨
- 2007년 7월 설립된 연기군 장학회를 시작으로 2012년 8월 세종특별자치시 장학회로 명칭 변경 후 2015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을 거쳐 2018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 (주요업무) 세종시는 2020년 기준 신규사업 13개를 추가하며 총 37개 사업과제를 제안하여 진행함
- 신규사업으로는 지속가능한 인재육성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장학사업 대상 수요 조사,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운영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직원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함

[표 3-10] 추진사업 현황

추진목표	추진과제	추진사업명
중장기 사업 운영체계 구축	미래성장기반 사업 체계 구축	①인재육성, 평생교육 정책연구기능 강화 ②인재육성, 평생교육 네트워크 내실화 ③직원 기획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운영 전문화 기반조성	①평생교육 컨설팅 지원내실화 ②평생교육 관계자 맞춤형 연수 추진 ③기관 운영 성과 홍보, 피드백 고도화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금 관리 선진화	①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운영 ②기부금 운영의 효율화
시민 행복 기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시민 중심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①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 확대 ②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고도화 ③사이버평생학습관 개편 운영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①정책아카데미 운영 ②시민대학 <집현전> 운영 ③문해교육 활성화 ④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⑤민주시민교육활성화 ⑥평생교육 기관, 단체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학습역량의 지역사회 환원	①마을 평생학습 플랫폼 지원 ②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세종형 지역인재 육성	지속가능 인재육성 추진기반 구축	①잠재적 장학 사업 대상자 수요 조사 ②장학금 기부자 및 수혜자 풀 구축
	성장단계별 장학모델 구축 및 지원	①핵심인재육성 장학 사업 확대 ②디딤돌 장학사업 운영 ③무지개 장학사업 운영
	미래인재 교육모델 구축 및 지원	①<세계로 문화인재> 육성 사업 추진 ②청년비전대학 운영 ③장학캠프 운영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전략 집중형 조직체계 구축	①경영기획 및 사업 전문인력 증원 ②직원 교육훈련 체계 정비
	성장 관리체계 고도화	①업무편람 제작 및 배포 ②인재육성, 평생교육 사업 성과지표 개발 ③직원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소통과 상생의 직장 문화 조성	①내부 제안제도 운영 및 직원 표창 ②소통의날 지정 운영 ③유연근무 및 연차 촉진제 정착
	전략적 사회공헌 추진	①1社, 1村 사회공헌 활동 확대 ②직원 재능기부 활동 활성화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2020) 경영공시 참고

■ 기구 및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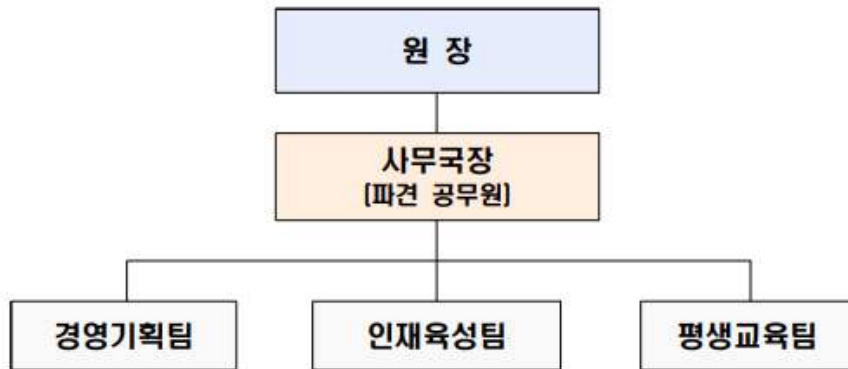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기존 2국 체계에서 1국 3팀제로 개편함

- 인재육성국 → 경영 부서 + 인재육성 사업부서 분리
- 평생교육국 → 평생교육 사업 내 인재육성 유관 사업 이관

[표 3-11] 인력 현황

구분	계	원장	기급	니급	다급	라급	마급
총계	13	1	2	2	3	2	3

[그림 3-1] 조직도



[표 3-12] 부서별 담당업무

부서	주요업무
경영기획팀	사업계획 수립 및 경영평가, 정책조사 연구, 인사 및 계약 관리, 대외협력 업무 등
인재육성팀	장학사업 운영 모델 개발,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학캠프 운영 및 장학생 사후 관리, 청년비전대학 운영 등
평생교육팀	정책아카데미 및 시민대학 운영, 마을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 사이버평생학습관 및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운영,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운영 등

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 (설립목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전남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 2020년 7월 그동안 위탁 운영 된 전남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하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출범함
- (주요업무) 수탁기관으로 운영 된 평생교육진흥원은 사무처를 중심으로 기획지원과 사업운영 파트로 나뉘 운영되었으며 기획지원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기반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며 사업운영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전반적인 사업 지원을 실시함
-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사업의 경우 조직 통합 이전 인재육성재단에서 실시한 장학 내용을 정리함

- 인재 장학금 : 성적우수자 장학금, 미래인재 장학금(일몰)
- 복지 장학금 : 희망키움 장학금, 전남학숙 장학금
- 도정발전 유공장학금 : 고향정착 희망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 특별지정 장학금 : SK E&S 전남도시가스 장학금, 해양도시가스 장학금, 울촌현대 장학금, 환경자 장학금, 녹색에너지 장학금
- 기타 장학금 : 5·18민주유공자녀 장학생,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장학생, 위기가정 긴급지원 장학생

[표 3-13] 전라남도 인재육성사업 현황

구분	지원사업
새싹인재	예능영재 키움 : 교육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술 교습 기회 제공 현장체험캠프 : 문화체험캠프(영어캠프), 노벨캠프(과학 동아리 지원), 마이스터 현장캠프(특성화, 마이스터고 대상) 미리보는 진로체험 : 이공계 진로체험, 대학 선배 멘토링 석학과 함께하는 인재학당 : 청소년 대상 인문학 캠프 운영
핵심인재	숨은 인재 발굴 대회, 전남스타 200인, 중화권 전문인재, 석·박사 도비유학생
산업인재	미래산업 연구인재, 산업인재 현장연수, 비즈니스 아카데미, 지역공동체 아카데미

- 평생교육사업은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당시(2019) 진행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함.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교육 기회 확대,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 기반확대 및 홍보 강화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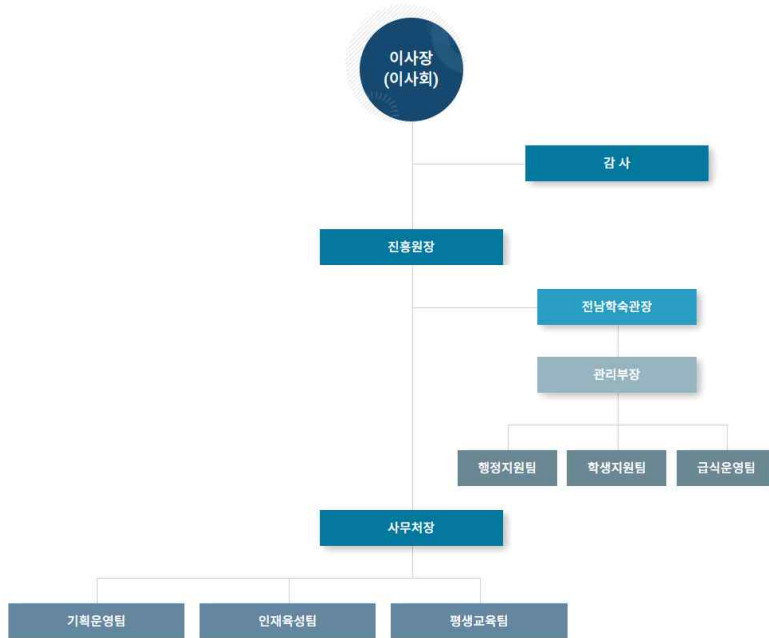
[표 3-14] 전라남도 평생교육사업 현황

구분	지원사업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움 디딤돌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지원 인생이모작 지원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농촌형 문해교육 부교재 개발 문해교육 교원 연수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전남 배움 행복마을 학교 조성 지원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 행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남도학 사업 <인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도민교육>
평생교육 기반확대 및 홍보강화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동네방네 배움뜰 평생교육 실태조사 시군 평생교육 DB 구축 평생학습 스토리 기지단 운영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평생학습 소식지 및 성과집 발간

■ 기구 및 인력

- 사무처를 중심으로 3팀으로 조직이 운영되며 전남학숙관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3-2] 조직도



[표 3-15] 부서별 담당업무

부서	주요업무
기획운영팀	경영평가, 전남학숙 관리, 인재육성기금 및 장학생 DB관리, 시군 및 대학 관계자 연계체제 구축, 인사관리, 진흥원 홍보 등
인재육성팀	새천년인재육성 사업,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사업, 중화권 전문인재 육성 사업, 예능영재키움, 청소년 노벨캠프, 공공기관 진로체험, 문화교육센터 운영 및 생활문해교실 운영 등
평생교육팀	평생교육기본계획 수립,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전국평생학습박람회 추진,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생활기술교육 운영, 문해의 달 및 문해교육 시화전 운영, 지역 맞춤형 문해교육 특성화 사업, 문해교원 역량강화 및 양성과정 지원, 성인문해능력조사지원,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 등

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MISSION

“성숙한 평생학습사회 제주 실현”

VISION

제주인의 성장과 가치를 키우는
미래 인재양성과 평생학습사회 구현

VALUE

핵심 가치



■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 (설립목적)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의 필수요소인 도내 학생과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화 의식 형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며 도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목적으로 함
- (주요업무)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이 전신이며 2013년부터 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사업을 실시, 2017년 (구)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과 명칭 변경을 진행했으며 이후 2018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출범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사업과 인재육성사업으로 나누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분별로 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 3-16] 평생교육사업 및 관련 대행 사업 현황

구분	지원사업
진흥원 사업	문해교육 사업 사회적배려계층 평생교육지원 사업 제주도민아카데미 제주평생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홍보 제주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연수 평생교육 조사 및 연구사업 평생교육자원활동가 및 강사양성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대행사업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탐나는 5060프로젝트 운영

[표 3-17] 인재육성사업 및 관련 대행 사업 현황

구분	지원사업
진흥원 사업	제주인재육성장학금지원 제주청년 성장지원 사업
대행사업	제주도민 외국어 교육사업 운영 제주형 생활밀착 다기능인 양성 사업

■ 기구 및 인력

- 본부 체계로 현재 경영지원부, 전략사업부, 평생교육부, 인재육성부로 나뉘어짐

[표 3-18] 인력 현황

총계	원장	본부장	부장	부원
15명	1명	1명	4명	9명

[그림 3-3]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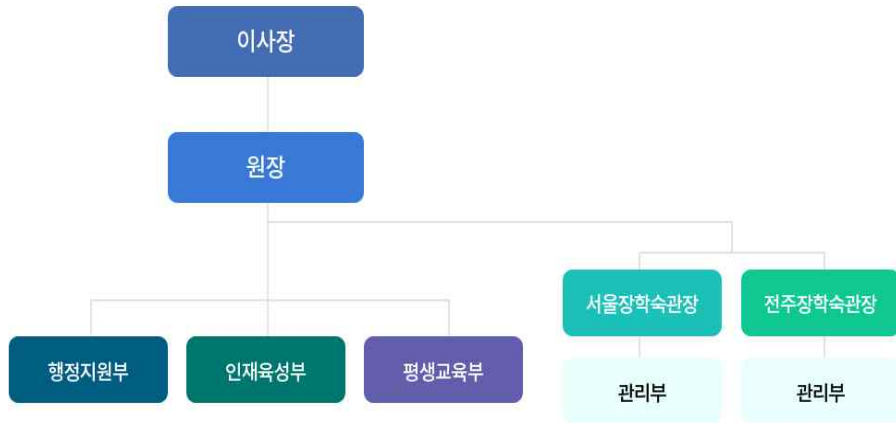
[표 3-19] 부서별 담당업무

부서	주요업무
경영지원부	경영지원, 자문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후생복지, 예산편성 및 결산, 출연재산 보고 등 세무 관리 등
전략사업부	진흥원 비전 및 목표 수립, 부서위탁사업 운영 관리,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추진, 평생교육 통계 및 실태조사, 연구조사, 마을학교 운영지원, 노인평생교육,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등
평생교육부	위탁(제주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중국어체험학습관), 문해교육센터지정,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 양성과정, 교육취약계층 평생학습, 장애인 평생교육거점기관 운영사업, 도민평생학교 운영,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역량 강화사업,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인재육성부	제주인재육성장학금지원사업,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제주인재육성장학금 지급, 인재육성장학금 공개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 지정기부금단체 운영, 미래인재 혁신역량강화사업 운영 제반 사항 지원, 제주도민 외국어교육사업 등

3.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현황

가. 조직 및 시설 현황

-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3부체제로 행정지원부, 인재육성부, 평생교육부로 구성됨



구분	합 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정원	57	14	22	21
현원	51	10	20	21
증감	△6	△4	△2	-

- 진흥원에 소속된 직원은 총 51명으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10명, 서울장학숙 내 직원은 20명, 전주 장학숙은 21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음

[표 3-20]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 운영과 기본재산 관리, 인재육성 지원사업, 대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각종 장학금 지원사업, 평생교육진흥사업
서울장학숙	서울장학숙 본관 및 청운관(고시원)입사생 관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및 졸업생 사후관리 등
전주장학숙	전주장학숙 입사생 관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및 졸업생 사후관리 등

- 진흥원에서는 현재 2개의 장학숙 시설을 운영 중에 있음

[표 3-21] 장학숙 시설 현황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일 -서울장학숙 1992.3.7. -청운관 2005.12.8.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9길 117-17 • 규모 : (연면적)8,669㎡, 지하1층/지상5층 • 수용인원: (서울장학숙)300명, (청운관)64명 • 주요시설: 숙실(서울장학숙 150실, 2인1실, 청운관 64실 1인 1실), 도서관, 복카페, 식당, 사무실, 중회의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자유회의실, 취업정보실, 기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일 : 1999.9.4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21 • 규모 : (연면적)7,108㎡, 지하1층/지상5층 • 수용인원 : 300명 • 주요시설 : 숙실(150실, 2인1실, 식당, 독서실, 도서관, 체육시설, 자유회실, 회의실, 휴게실 등

나.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및 중점 추진방향

뉴노멀시대 **인재육성**과 **도민 평생학습**으로 행복 전북 구현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추진전략(5개)	중점과제(15개)
인재육성사업 성과 제고	신규사업 발굴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뉴노멀산업 관련 대학생 연구사업 지원 도내 인재들의 인적네트워크 형성
온라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평생교육 관계자 비대면 활용능력 강화 온/오프라인 학습이 가능한 문해교육 지원
안정적인 기금 확보	장학기금 출연 확대 및 홍보활동 강화 도민의 자발적 기부참여 활성화 수혜자 및 장학숙 출신자 소액기부 참여유도
장학금 지원사업 고도화	외부장학금 지원 사업 확대 장학사업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장학금 지원 실효성에 맞게 제도 개선
장학숙 운영의 활성화	장학숙 커뮤니티 구축 및 지역사회 공헌 중동기회 활성화 및 사후관리 강화 홍보활동 및 대내외 소통 강화

-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전라북도의 다양한 인재상들에 대한 학습지원과 전북도

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전라북도를 견인할 인재육성과 도민들의 생활 행복 가치 추구를 지향하며 “뉴노멀 시대 인재육성과 도민 평생학습으로 행복 전북 구현”을 비전으로 제안함

- 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진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의 기능 강화와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됨. 이를 위해 첫째, 인재육성사업 성과 제고, 둘째, 온라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셋째, 안정적인 기금확보, 넷째, 장학금 지원사업 고도화, 다섯째, 장학숙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함
- 진흥원의 지원 사업은 크게 인재육성, 장학지원, 평생교육진흥, 장학숙지원으로 진행됨

다. 인재육성

■ 전북인재 인성교육 강화사업

- 사업목적: 전라북도 학생들의 인문학적 지식 및 소양 제고와 전통정신 및 예절을 겸비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유학의 학습과 전통문화체험활동을 진행함
- 사업비: 37,000천원
- 추진대상: 80명(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1~3학년))
- 사업기간: 2021.7.~11월
- 사업내용: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도내 전통문화 체험활동 실시

■ 전북형 뉴딜산업 탐구 지원사업

- 사업목적: 전북형 뉴딜산업에 대한 도내 대학생들의 아이디어 발전 및 탐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북의 뉴딜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 사업비: 35,000천원
- 추진대상: 30명(9개 그룹, 전라북도 출신 대학생 탐구팀)

- 사업기간: 2021.3.~10월
- 사업내용: 전북형 뉴딜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방문 및 연구를 통한 아이디어 개발과 탐구활동 지원

■ 인재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

- 사업목적: 전라북도 인재육성을 위한 시군 및 전국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인재육성 사업 방안을 모색함
- 사업비: 30,000천원
- 추진대상: 14개 시군 관계자 및 교육 관계자, 연구원, 국내 담당자, 전문강사 등 인재육성 관련 전문가
- 사업기간: 2021.1.~9월
- 사업내용: 인재육성 사업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강의 및 의견수렴과 운영대책 방안 모색

■ 전북장학생 멘토링 사업

- 사업목적: 전북지역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진로 고민과 생활, 학습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멘토링을 진행하고 전북 인재 간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함
- 사업비: 55,000천원
- 추진대상: 38명(멘토 13명, 멘티 25명)
- 사업기간: 2021.2.~10월
- 사업내용: 도내 대학생과 중고등학생간 멘토 활동으로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학습, 생활안내 활동 지원

■ 다문화 자녀 전복 이해사업

- 사업목적: 도내 다문화 자녀들의 전복 이해 심화를 위해 전복의 자연, 문화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상호간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 사업비: 55,000천원
- 추진대상: 다문화 가정 초·중·고등학생 200명(전북도 현지탐방 100명, 기행문 발표대회 100명)
- 사업기간: 2021.7.~11월
- 사업내용: 역사 및 자연문화 탐방을 통한 전복 이해심화학습 및 탐방 기행문 발표대회 개최

다. 장학지원

■ 장학기금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사업

- 사업목적: 계속되는 저금리 상황으로 이자 감소에 따른 장학생 선발인원 축소 및 지급액 감소의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함
 - 조성액 : 12,812백만원('21.6.30 기준)
 - 출연금 : 5,139백만원(도 3,039, 시군 2,100)
 - 기타 : 7,673백만원(성금 1,368, 이자 2,991, 적립금 3,314)
 - 금이자수입 사용 : 장학금 지원(연/360명 2.5억원 규모)
- 사업내용: ① 홍보활동 추진 및 소액기부자 확대 추진, ② 재경고등학교동문회 장학기금 유치활동 추진, ③후원회 모집 활성화, ④홍보활동강화(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 전북사랑 장학생

- 선발인원: 100명

- 선발대상: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 고등학생
- 선발방법: 해당 학교장 1차 추천 후 도교육감 종합 추천으로 선발
- 사업비: 30,000천원(1인당 300천원)
- 선발시기: 2021.7~8월 중

■ 희망장학생

- 선발인원: 80명
- 선발대상: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 고등학생
- 선발방법: 시·군별 구분 선발(학업성적 70%, 생활정도30%)
- 사업비: 40,000천원(1인당 500천원)
- 선발시기: 2021.7~8월 중

■ 향토인재 장학생 선발사업

- 사업목적: 전라북도 출신 대학생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함
- 선발인원: 150명(서울 50명, 지방 100명)
- 선발대상: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 선발방법: 서울지역 대학생과 지방대 및 전문대 구분 선발, 시군별 기본 3명 배정(진흥원에 출연한 기금 비율 배정), 예체능, 장애인 별도 배정 선발
- 사업비: 150,000천원(1인당 1,000천원)
- 선발시기: 2021. 3월 중

■ 미래인재 특기장학생 선발

- 사업목적: 예술, 체육, 기능분야에서 우수한 자질을 보이며 개인의 창조적 역량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여 전북의 미래인재로 육성하고자 함
- 선발인원: 30명(고등학생 20명, 대학생 10명)
- 선발대상: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
- 선발방법: 분야별 선발 제한, 수상 실적 및 생활 정도에 따라 심사 진행
- 사업비: 30,000천원(1인당 1,000천원)
- 선발시기: 2021. 10월 중

라. 평생교육진흥

□ 도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 사업

- 사업목적: 전라북도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실시함
- 사업비: 169,000천원
- 추진대상: 14개 시·군, 도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
- 사업기간: 2021.1~12월
- 사업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공모),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 평생학습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 사업목적: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함. 또한 지자체 관련 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기반 마련을 실시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함

- 사업비: 45,000천원
- 추진대상: 14개 시·군, 도내 평생교육 관계자, 광역기관 및 단체 등
- 사업기간: 2021.1~12월
- 사업내용: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가항 사업, 평생교육 비대면 강의 기법교육,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추진

□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홍보사업

- 사업목적: 지역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도내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질적 성장을 추진함
- 사업비: 70,000천원
- 추진대상: 14개 시·군,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평생학습도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 사업기간: 2021.1.~12월
- 사업내용: 평생교육 정책개발 사업, 지역 공공기관 협업사업,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운영,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 사업목적: 도내 저학력·비문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문해교육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문해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사업비: 130,000천원(국비 66,000천원 포함)
- 추진대상: 시·군 문해교육 기관, 문해교육 교사, 성인문해 학습자 등
- 사업기간: 2021.1.~12월
- 사업내용: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문해교육 현황 조사, 시화전, 문해교육 한마당, 협의회 등),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보수교육, 전북형 문해교육 부교재 개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협력사업 실시

마. 장학숙 지원

■ 서울장학숙 주요 업무

사업명	사업내용
① 재경동문회 및 유관단체 업무협약 추진	입사생 면학 및 진로지원 확대를 위한 재경 도내 고교동문회 및 유관단체와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하여 협조체제 구축 - 사업대상: 재경향우회 및 고등학교 동문회, 유관단체 - 내 용: 재경 동문회 구성 여부 파악 및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재경 동문회와 전 북인재육성 협조체제 구축
② 코로나19 대응 예방활동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입사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학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활동 추진 - 사업대상: 전라북도서울장학숙 입사생 및 전 직원 - 내 용: 소독 관련 물품 배치, 장학숙 전역 공공장소 자체 소독, 예방활동 수칙 방송 실시 등
③ 선후배 생생 멘토링제 운영	취업성공사례와 취업정보 제공을 통해 입사생 취업률과 고시생의 합격률 제고를 도모 하며 선후배 간 교류기회 확대를 통해 전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함 - 사업대상: 2021년도 졸업예정자, 고시준비생 - 내 용: 고시 준비생과의 멘토링, 졸업예정자들과의 멘토링, 특강을 통한 멘토링 실시
④ 출신자 사후관리 및 총동기회 운영	장학숙 출신 전북인재들의 다양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탄력적 운용으로 국가와 전 북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 - 사업대상: 입사생, 장학숙 출신자, 총동기회 회원 등 - 내 용: 출신자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용, 총동기회 총회 및 재능기부, 후배장 학금 지원
⑤ 입사생 동아리 활동지원	입사생들의 취미활동 및 재능개발 지원을 통해 건전한 학숙생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 사업대상: 2021년 신청 동아리 중 적격 동아리(7인이상 월 2회 이상 활동가능한 동아리) - 내 용: 분야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⑥ 지역사회 봉사활동 운영	방학 중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입사생들의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통한 지역 공동 체 형성 및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 형성 - 사업대상: 장학숙 인근 주민 - 내 용: SNS 활용 프로그램 교육 실시
⑦ 건강한 급식 및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한 시설관리, 화재예방, 노후시설 환경개선, 건강한 급식 제공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건강한 급식 관리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선호도 조사 실시 - 입사생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시

■ 전주장학숙 주요 업무

사업명	사업내용
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장학숙 인지도 향상	<p>도내 고교·대학교 및 유관기관에 전라북도장학숙 사업을 알리고 전인적 향토인재육성의 요람으로서의 이미지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고교·대학교, 유관기관 및 전북도민 대상 - 내 용: 장학숙 대면 및 비대면 홍보 실시, 홍보 소식지 제작, SNS 홍보계획 수립 등
② 건강한 급식 및 안전한 장학숙 관리	<p>안전한 시설관리, 화재예방, 노후시설 환경개선, 건강한 급식 제공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급식 관리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선호도 조사 실시 - 입사생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시
③ 코로나19 대응 안전활동 강화	<p>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실시를 통해 장학숙 입사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면학활동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입사생 및 전직원, 외부 출입인 등 - 내 용: 전주장학숙 공용장소 소독, 코로나19 대응 방역사항 일일보고 체계 구축, 코로나 19 대응 생활수칙 수시주지 등
④ 총동기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진로지도	<p>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장학숙 출신 선배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입사생들의 취업진로 지도 및 향토인재 육성에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사회진출자 2,644명 - 내 용: 취업 현황 전수조사 및 장학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내 취업정보 제공, 입사생 동일직군 및 전문직 선배 연결 멘토링 실시
⑤ 입사생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p>전주장학숙 입사생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애로사항 해결, 관리를 통해 건강한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전인적 인재육성에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입사생 - 내 용: 입사생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우울, 불안, 척도) 설문 조사 실시, 스트레스 측정 및 치료 프로그램 개별 진행 등
⑥ 직무능력 강화를 통한 장학숙 경쟁력 강화	<p>장학숙 직원들의 기본 직무능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입사생 관리 및 장학숙 운영의 경쟁력 향상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장학숙 전직원 - 내 용: 직무별(학생지원, 시설, 행정) 맞춤 필수 및 공통분야 이수, 입사생 상담, 분야별 법정 필수교육, 기술보유자격 갱신, 재무회계, 예산처리, 사업장 의무교육 등
⑦ 코로나19 극복 입사생 지원활동	<p>코로나19로 침체된 장학숙 입사생들에게 다양한 지원활동을 실시하며 활력을 도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장학숙 입사생 - 내 용: 장학숙 입사생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외부장학금 유치수급, 성년의날 격려 및 행사 진행, 모범 입사생 표창 및 격려 등

4. 시사점

가. 보편적 인재의 개념 도입

- 공동체적 인재와 창의인재는 공통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벗어나 공공선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OECD의 인적자본 개념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
- 지역적 측면에서 개인적 인재관은 권력과 재력이 집중된 중앙을 주 활동범위로 선정하는 반면 공동체 인재관은 권력과 재력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의 발전을 범위로 선정함
- 창의인재 역시 지역적 범위를 선정하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개념임
- 지역범위에서 장노순(2003)은 지역인재에 대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있는 개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관리 능력을 사람”(p.58)으로 규정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여러 방면의 인재로 제한함
- 이에 반해 교육부의 미래 인재관인 ‘혁신적 포용인재’는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자질을 극대화시키는 모든 국민을 인재로 규정하고 개인적 속성과 지역적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
- 구 인재육성재단의 인재는 성적이나 예체능 실적 등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학생으로 규정되었음
- 하지만 교육환경의 변화로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가진 인재로 인정하고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보편적 학생으로 변화됨
- 구)평교육진흥원의 대상에서 인재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는 보편적 개념으로 접근함
- 따라서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결합으로 인재뿐만 아니라 전 도민 모두 수혜자로 개념이 확대되어야 함

나. 보편적 개념으로 정책변화

- 과거 성적이 우수하거나 주요 시험의 합격, 일류대 등 출세지향적 인재관이 주를 이룸
- 출세지향적 인재관은 특정 부분에 재능을 지닌 개인적 인재관임
- 최근 이러한 인재관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환경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인 공동체지향적 인재관으로 변화됨
- OECD 인적자본은 사회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능력으로 사회적 차원의 포괄적 개념임
- 따라서 전라북도의 인재 및 평생교육의 개념도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을 넘어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함

다. 통합에 따른 차별화 전략

- 부산인재평생교육원은 인재육성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대학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기초 조사와 시민대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업무를 실행하고 있음
- 2017년 9월 설립된 울산인재육성재단을 2019년 12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법인 변경, 짧은 연혁으로 장학사업이 주를 이루고, 평생학습 업무는 미진한 실정임 (2019년 관련 조례 제정)
- 광역자치단체이지만 공간적 범위와 행정업무 범위가 작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으로 장학사업을 기본으로 수행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평생교육업무만 수행하고 있음
- 2020년 7월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인 통합된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통합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물리적 시너지 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전남의 경우 인재를 새싹인재, 핵심인재, 산업인재 등 폭넓게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 더불어 인재, 복지, 도정발전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은 고유사업인 장학사업과 평생교육 업무 외에 다양한 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평생교육 업무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중국어체험학습관 등 시설 운영에 더해 탐나는 5060프로젝트 운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대행하고 있음. 인재육성 업무로 도민 외국어 교육사업과 생활밀착 다기능인 양성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 부산인재평생교육원의 경우 대학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이룩함
- 대학중심의 부산은 ‘부산인재평생교육원 중장기 발전구상’과 ‘부산 인재육성·평생교육 진흥 종합계획’ 등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특징을 나타냄
- 전남의 경우 인재의 연령 범위를 소아부터 중고생, 대학생, 석박사, 청년, 중까지 폭 넓게 규정하고 있음
- 더불어 다른 지역의 장학금이 성적우수자를 중심인데 반해 전남은 희망키운 장학금, 고향정착 희망 장학금,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등 복지개념의 장학금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을 시행해야 함

라. 수평적 통합 미흡

-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은 근대적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랭그랑의 시간적 의미의 수직적 통합을 의미하지만 공간적 의미의 수평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음
- 구)인재육성재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체험해외연수’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연계한 ‘멘토링사업’,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학숙’ 등 학업기 소아와 청소년, 청년을 사업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이에 반해 구)평생교육진흥원은 한국 평생학습 프로그램 6진 분류표(KLPCS)에 따라 학

령기 소아와 청소년, 청년에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력보완교육’부터 학력기 배움의 기회를 받지 못해 글을 통해 문맥을 파악하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 문자해득교육’,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 향상교육’,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까지 전 연령대를 사업 대상으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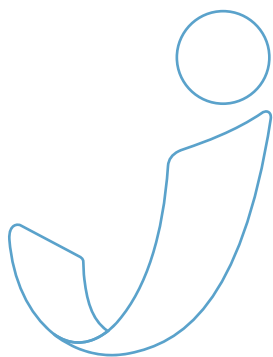
- 따라서 수직적 통합 개념에서 인재육성재단의 사업 대상은 평생교육진흥원의 부분집합에 속함
- 개별 조직이었던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나의 조직로 통합됨으로써 사업 대상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졌음
- 더불어 구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인 ‘글로벌체험해외연수’와 ‘장학사업’과 ‘장학숙’ 사업은 학교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보조적 사업임
- 구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 영역도 학교 프로그램의 직접적 진흥 사업이 아닌 학교 밖 사회교육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두 기관의 통합은 여전히 학교단일체계 중심의 근대교육체제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평생교육 관점의 수평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음



제4장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구성원 및 수혜자 인식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개요
2. 통합에 따른 과도기적 문제점
3. 인재육성 분야
4. 평생교육 분야
5. 장학숙 분야



제 4 장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구성원 및 수혜자 인식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개요

■ 구성원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개요

-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나로 통합되며 구성원들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단일 기구에 소속됨
- 통합 이후 실무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계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이하 FGI)를 실시하였음
- FGI는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되었으며 1차 FGI는 2021년 8월 12일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임직원 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차 FGI는 2021년 8월 18일 전주장학숙에서 직원 4명에게 실시함

[표 4-1]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대상	직위
A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임원
B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장
C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장
D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팀장
E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팀장
F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팀장
G	전주장학숙 부장
H	전주장학숙 팀장
I	전주장학숙 직원
J	전주장학숙 직원

- FGI 대상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임원 1인, 부장 2인, 팀장 3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위탁기관인 전주장학숙 부장 1인과 팀장 1인, 직원 2인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수혜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개요

-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원 수혜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수혜자 FGI를 실시하였음
- 수혜자 FGI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시군 등 거리적 한계로 2022년 1월 4일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인터뷰로 진행됨

[표 4-2]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대상	직위	참여 프로그램
A	문해교육 강사	평생교육 강사 역량 강화 사업
B	농업인	도시농업 평생교육 프로그램
C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담당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D	군산 문해교육 운영자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E	부안 문해교육 운영자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F	대학생	전북 인재멘토링사업 등
G	대학생	뉴딜탐구지원사업
H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청소년우울감해소 인성교육

- 수혜자 FGI은 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관련 6인과 전북 인재멘토링 사업 등 인재육성 관련 2인 등 총 8명으로 진행됨
- 구체적인 대상은 문해교육 강사 1인과 농업인 1인,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담당자 1인, 문해교육 운영자 2인, 대학생 2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1인임

2. 통합에 따른 과도기적 문제점

가. 물리적 통합 완성, 화학적 결합 미흡

■ 분절된 업무

-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은 교육을 매개로 두 조직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조직 규모가 확장되며 물리적 통합을 이룸
 -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성원인이 적어졌다가 2배정도로 늘어나는 거잖아요.(구성원 D)
 - 독자적 영역의 두 개가 각자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재육성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인재육성재단. 하나는 주로 중년, 노년층이 주요대상이 되는 평생교육. 이쪽이 또 하나의 주축이 돼서 주 사업을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학적 융합이 내부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만난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딱 크게 보면 교육영역에 동의성을 가지고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구성원 A)
 - 이렇게 통합시킨 것은 내가 볼 땐 업무의 유사성이 있으니까 통합을 시켰겠죠.(구성원 C)
- 조직은 통합되었지만 업무의 통합은 미흡한 실정임
 - 그냥 일 플러스 일 해서 제대로 통합은 아니고 한군데 모아놓은 느낌이긴 해요.(구성원 B)
 - 그전에는 한가지의 업무로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한 방향을 같이 보고 나가는 게 있었는데 업무의 다양성이 되면서부터 그게 좀 갈라져서 운영이 된다. 라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구성원 D)
 - 팀이랑 팀이 진흥원으로 묶여지는 느낌보다는 여기 따로 돌아가고 여기 따로 돌아가고, 그런 느낌.(구성원 F)
 - 평생 따로 이쪽 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약간 틀리게 돌아가 있는 것 같긴 해요.(구성원 B)
 - 관계자는 통합된 다른 지역 진흥원 사례를 검토한 결과 분절된 업무 문제점을 발견함
 - (통합된) 울산, 제주 이렇게 가봤거든요. 근데 느낌은 다 마찬가지로예요. 인천도 그렇고. 거기도 다 서로 서로 불만이 있어요. 다들 합쳐진 분위기에 대해서 불만들은 상당히 많았던 건 사실이었고.(구성원 D)

■ 수혜자, 인재평생교육 분야 분리

-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출범으로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업무가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수

혜자들은 기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함

- (인재평생교육진원에 대해) 솔직히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관은 전주시 평생학습관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처음 진행했습니다.(수혜자 C)
- 저는 전북평생교육진흥원 정도만 알고 있었고 인재육성재단은 (통합 후) 제가 프로그램을 서치 하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수혜자 A)
- 평생교육기관 운영자들은 오랜 업무로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인재육성분야를 막연하게 알고 있음
 - 문해 전담기관으로 저희는 성인문해교육을 국평원 사업을 2007년부터 해왔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전북에 생기면서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국평원의 사업을 도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직접적으로 교육도 받고 진흥원 사업에 참여해서 교제도 쓰고 했는데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수혜자 D)
 - (인재육성 사업에 대해) 아이들 장학이나 지원사업, 글로벌(해외연수)이나 그런 거 하는 친구들한테 들은 적은 있습니다.(수혜자 D)
 - 성인문해교육을 이끌어 주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교육 기관은 없는데 평생교육 기관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안고 가니깐 그 쪽에서 성인문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구나.(수혜자 E)
 - 부안군 인재양성팀이라고 해야하나요. 그 팀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 전라북도 내에 있다는 것은 이걸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수혜자 E)
 - 아까 들을 멘토링 사업 정도 알고 있습니다.(수혜자 C)

■ 통합 초기 과도기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들은 화학적 결합의 미흡에 대해 통합에 따른 초기 혼란의 문제로 인식함
 - 짐은 하난데,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구성원 E)
 - 그렇게 지금 뭐든 지금 합쳐지는 게 다 지금 되고 있는 시기라서 과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구성원 D)
 - 저희가 통합을 하는 초장기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차후에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직이 하나로, 기관이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구성원 E)
 - 어쨌거나 큰 테두리에서 교육의 범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 인재평생 합쳐진 곳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구성원 B)

- 관계자들은 통합기구의 인력 및 업무결합을 위해 업무와 인사 등 변화를 요구함
 - 업무가 분리가 된다고 해도 섞어서 뭘 어떻게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업무나 사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재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구성원 B)
 - 그래서 향후라도 이 조직이 잘 돌아가려고 하면 이거를 한번 섞는다든지 조화롭게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돼서 업무가 섞어야 할 것 같아요. 업무도 섞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도 섞어야죠. 사람이 여기 있었던 사람, 그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단절성이 있죠. 사람이 섞여야 맞을 것 같아요.(구성원 E)
 -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니까 인사이동을 다 시켜버렸더라고요. 평생교육사로 들어 와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행정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학팀으로 오기도 하고 또 그간 장학사업했었던 분이 평생이 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 파트로 가 가지고 일을 하고,(구성원 D)
- 진흥원을 이끌고 있는 임원도 인사발령을 통한 업무 순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아까 부장님 말씀대로 (직원들 업무) 좀 섞어야 하고, 제가 한 2년 동안에 많이는 못해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구성원 A)

나. 화학적 결합의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평생교육사 자격증

- 일반 사무직으로 채용된 인재육성재단 직원과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자격제한으로 채용된 평생교육진흥원 직원 간 채용조건 차이로 인재육성재단 출신 직원 입장에서 자격증 여부가 인사교류의 걸림돌로 작용됨
 - 평생교육 쪽은 어차피 이쪽은 별도의 자격증(평생교육사)이 있어야만 평생 뭐 그 업무를 볼 수 있는지 (구성원 E)
 -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하는 경향이 있다(구성원 D)
- 관계자들은 진흥원 설립을 위해 일정 비율의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야 하지만 평생교육 업무를 꼭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함
 -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교육사가 몇 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 거는 분명한데, 어느 진흥원에서도 모든 사람이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자격증 없이도 다 하고 다 이렇

게 분장을 받아서 하는 거고 공무원들은 다 그러잖아요.(구성원 B)

- 평생교육사의 거의 원조격인 울산 팀장님이 평생법에 그 조직 내에 자격증 수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확정해서 말씀을 해주셔.(구성원 D)

■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 관계자들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무교육을 요구함
 - 정책에 자격증이 필요하다든가 최소한의 요건으로 몇몇 자격증 소지자가 있겠다 하겠죠. 그것은 뭐 장기적으로는 연수를 통하든 뭘 통해서 최소한 인원보다 좀 많게 최소한 2명이라고 하면 한 4명 정도는 여분으로 한 120%-130정도 할 수 있도록 연수라던가 통해서 해봐야 할 것 같고.(구성원 C)
- 진흥원 직원들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고 있고,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도 통합 이후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인재육성재단 쪽에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고 그런 사람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은 적극적으로 불러 들여 가지고 그런(평생교육) 쪽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도 그런 얘 기 했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내가 대학원을 가야겠다. 또 뭐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동참해야겠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그랬어요.(구성원 A)
 -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면은 저쪽 일을 분리해갖고 서로 협조하고 같이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구성원 G)
 - 저희들 직원 전문화를 위해서도 명색이 진흥원인데 지원만 해준다면 자기 개발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교육은 충분히 다 참여하고 만족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구성원 J)

■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를 통한 진흥

- 평생교육 수혜자들은 관계자 대상의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 매우 만족함
 - 일 년마다 매년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를 다잡는 생각이 되고 다른 기관 선생님들도 만나고 다른 기관 사업도 공유할 수 있고 조금 씩 강화를 해주겠지만 다양한 기관에 프로그램이 좀 더 보완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글을 가르쳐도 교육은 계속 필요하고 보수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수혜자 E)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함

- 평생교육 사업을 처음 받았는데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가능하도록 진흥원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바뀌어 가는 교육형태들에 대해 이후 상황 등에 대해 역량강화 사업 등을 확대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수혜자 C)
- 저는 이제 성인 문해 관해서 말씀드리면 강사 분들의 역량강화 부분이 무주가 생긴지 2~3년 정도 되었는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량강화 수업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수혜자 A)

나. 홍보 부족 및 해결 방안

■ 홍보 부족

- 인재양성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수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홍보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함
 - 젊은 연령층을 위한 홍보나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수혜자 E)
 - 저도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교육이 있다면 도농간에 홍보가 활발해져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수혜자 B)
 -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 하는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을 수 있고 이게 경쟁이기 때문에 크게 공유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게 홍보가 활발해져야 (수혜자 D)

■ 홍보 방안

- 홍보 방안으로 청소년 대상 상담기관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령연령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 방안을 제안함
 - 저희 센터 홍보를 많이 해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데 온라인 홍보나 카카오톡 채널을 넣어 상담을 하기도 했는데 진흥원도 참여를 하고 수혜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수혜자들이 직접 저희랑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수혜자 H)
- 디지털 기기 사용에 미숙한 어르신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 등 전통적인 홍보도 강화해야 함
 - 2021년도에 (농수산대학) 가공과를 다니다가 플랜카드를 보고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있기에 신청했습니다. 나이 먹어서 배울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있었고 도시농업이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했으면 하

는 바람입니다.(수혜자 B)

3. 인재육성 분야

가. 인재의 개념

- 진흥원 임직원들도 현대 사회의 인재를 과거 수재형 인재에서 벗어나 다원화 된 사회 현상을 반영한 다각적 분야의 인재로 인식함
 - 과거에는 인재라는 것이 뭐 학교 공부 잘하고 하면 인재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 됐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다원화 된 분야에서 뭔가 소질이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소질이 있으면 그게 인재죠. 그거를 지금 이제 인재라는 게 특정 어떤 분야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그중에서 조금 뭔가 좀 재능, 소질 있고 그래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면 그걸 키워주는 게 바람직한 인재 발굴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구성원 C)
 - 특별한 재능은 공부도 있을 수도 있고 예술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기술적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니까 이제 그런 쪽에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전라북도를 빛내고 앞으로 이끌, 그런 측면에서 이끌어 가고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거니까(구성원 A)
- 하지만 진흥원의 인재육성 사업은 과거 수재형 인재육성에 머물고 있음
 - (분야별로 인재의 개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지금 고심해서 구상을 해야 합니다.(구성원 A)
 - 지금 장학사업과 연수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지금 장학사업과 연수사업을 그것을 그 자체가 인재육성으로 다 통 쳐가지고, 그렇게 개념이 이해가 되가지고 그런 사업만 해왔어요(구성원 E)

나. 인재육성 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단기 사업에서 장기 사업으로 전환

- 직원들은 전북의 인재육성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회성 지원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시스템을 이렇게 먼저 구축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도에서도 옛날부터 있었던 분야별로 어떤 성과를 내는 사람을 '전북의 별'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그 후에 계속해서 지원해주냐? 안한단 말

- 야. 전복의 별 한 번 주고 끝이야. 이렇게 나머지 본인의 성장은 개인이 해야 해.(구성원 B)
- 저희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학습, 보편적 학습을 한다고 하면 전문적 전공학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구성원 D)
- 직원들은 장기 기간이 소요되는 인재육성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함
 - 특출 난 애들 먼저 찾아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하고 개를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저거를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이렇게 분야를 이제 해갈 수 있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인재육성인거지.(구성원 B)
 - 교육 결과치가 단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늘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안을 만드는 것은 힘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특출 난 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 보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구성원 E)

■ 예산증액

- 진흥원 관계자들은 인재육성사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예산 증액을 꼽음
 - 타 사도는 (인재육성 사업이) 다양해요. 그리고 예산도 우리보다도 크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아직 까지 경제적 빈곤 때문에 비어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좀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요.(구성원 A)
 - 다 예산하고 귀결되는 거죠.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도 돈이 들고 시스템 구축을 해서 잘 나갈 때도 돈이 들고 뭐 어쩔 수가 없죠.(구성원 B)
-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통합을 계기로 진흥원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큰 폭의 도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폭적인 예산 증액의 어려움을 인지함
 - 예산의 한계라는 말이 작년에 우리(인재육성, 글로벌해외연수 제외) 예산이 3억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한 10억을 증액하고 싶어도 결국은 그렇게 예산이 안 세워 주잖아요.(구성원 E)
 - 올려야 3억 5천.(구성원 D)

■ 글로벌해외연수 어학연수에서 명장 육성으로 전환

- 진흥원 임원은 새로운 인재육성 방향으로 다양한 분야별 인재에게 최고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함

- 어떤 학생이 '난 치즈의 세계 명장이 되겠다.'고 치즈에 꽂혔어. 임실군과 우리 도 진흥원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스위스 보내자. 그래서 세계적인 치즈 생산지 보내가지고 공부시키자.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야. 그럼 시군이 주체가 되가지고 거기서 선발하고 거기서 보내고. 우리는 평생교육처럼 지원한다 이거야. 승마학교에서 어떤 승마의 기똥찬 재능을 가진 아이가 있다. 그럼 독일로 가서 승마 학교 보내자.(구성원 A)
-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글로벌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어학연수에서 벗어나 특정분야에 재능을 지닌 인재를 명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유학 프로그램으로 제시함
- 글로벌해외연수 사업도 종래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게 좀 새로운 방향에서의 연수사업, 이런 걸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구성원 A)

다. 장학업무 개선 방안

■ 장학사업 보수적 운영

- 진흥원 임원은 전라북도 장학제도가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지함
- 지금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하는 이지만 갖고 몇 푼주고 있어요. 전복사랑 장학금, 향토 인재, 희망 장학금 세 가지 인데 이렇게 해갖고는 만날 저 도의회가서 한 것도 없이 막대기만 보고 앉았다고 혼났잖아요.(구성원 A)

■ 장학사업의 다각화 및 특별지정 장학금 신설

- 임원은 장학금 재원마련 방안을 다각화시켜고 제도를 세분화시켜 다양한 인재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함
- 장학제도의 개선 방향은 기존 제도의 유지와 더불어 분야별 인재에 대한 지원 다각화를 요구함
- 외부에서 어쨌든 장학재원을 끌어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장학지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초등학생한테도 아까 얘기한대로 꿈나무 새싹 뭐 '어린 애가 피아노 기똥차게 잘 친다.' 그러면 물론 교육청 소속이지만 우리도 피아노 영재를 기르기 위해서 투자하겠다 이거예요.(구성원 A)
- 장학사업은 가정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쪽도 그렇게 가야하고, 아까 말 한

대로 소질이나 재능 개발 쪽, 그 쪽은 인재육성 쪽으로 해서 별도로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가야죠.(구성원 E)

- 특히 기부자의 이름을 딴 특별지정 장학금 신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안 되면 도청이나 어떤 투자자한테 가서 빌어갖고 영재 있으니까 애 하나만 당신이름으로 키워주소. '최윤규 피아노 장학생' 그렇게 해갖고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구성원 A)

4. 평생교육분야

가. 평생교육과 인재육성 대상

■ 수혜 대상의 이분적 구분

- 평생교육 관련 법률에서 대상에서 제도권 학교를 제외시킴으로써 직원들도 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배제시켜 평생교육과 인재교육의 범위가 이분적으로 구분됨
 - 저는 이제 평생교육을 학교 밖 교육이긴 한데 대상은 어린이부터 전 연령 다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은 다 평생교육 이라고 생각해요.(구성원 F)
 - 평생교육의 업무를 교육부에서 잡고 있어요. 근데 교육부에서 실상 학교 외의 평생교육은 업무만 잡고 있고 앞으로 학교가 점점 축소가 되고 있으니 업무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구성원 B)

■ 수혜자, 인재평생교육 포괄적 개념 미인지

- 통합 이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혜자들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자신과 관련된 분야만 알고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
 - (인재육성 사업에 대해) 그린뉴딜 탐구, 멘토링 사업, 해외 보내주는 사업(글로벌 해외연수) 3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에 대해) 아직 학생이라 잘 모르겠습니다.(수혜자 G)
 - 진흥원은 제가 알기로는 전북에 있거나 전북장학금을 이용한 사람들 중 전북 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자라는 의미에서 장학생 멘토링에 참여 했고 이제 전라북도 뉴딜사업 관련해서는 전라북도 대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정책 제언까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수혜자 F)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평생교육사업에 대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 전북장학생 장기 단기

- 나눠서 하고 뉴딜산업 사업 6개월 가량 해서 인지하고 있고 고등학생 멘토링 사업, 제가 참여하는 사업 위주로 보니까 주위 깊게 봤고(수혜자 F)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관별로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장학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수혜자 E)
 - 특히 인재육성분야 수혜자들은 자신들이 평생교육분야 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전북대도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대학생이 참여하기보다 일반인들이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진흥원 사업은 제 입장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전북 거주나 전북 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인이나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수혜자 F)
 - 아직 그런 것(평생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생각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수혜자 G)
 - 인재에 대한 개념이 전통적 출세지향 개인적 인재관에 머물러 있어 보편적 개념인 평생교육에 포함시키지 못함
 - 저희도 군산시에서 글로벌 인재 육성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형편이 넉넉한 아이들이었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서울로 가고 그런 충돌이 있었는데. 지역인재라고 해서 왜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야하는지...(수혜자 D)

나. 시군 협력체계 부재

■ 평생교육 총괄기관의 한계

- 진흥원은 평생교육 총괄기관으로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강제성이 부족한 현실로 가장 기초적인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업무에 대해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좋다고 하시는데, '데이터를 달라.' 어떤 거를 취합하려고 하면 협조가 안 되는 거지.(구성원 B)
 - 좀 부족한 부분은 전체 개발하는 부분이 아직 부족하고 저희가 전라북도의 데이터나 어떤 현황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구성원 F)
- 2016년 설립된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5년간의 짧은 연역과 소규모 조직, 적은 예산으로 도내 모든 평생교육 기관을 총괄하는데 한계를 지님

- 직접 사업을 안 하고 지원의 성격을 띠다 보니까 시군이랑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직 그 자리를 많이 잡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구성원 F)
- 협조가 잘 안 돼요. 도하고 시군, 시군 밑에 평생교육관들 이렇게 있는데 하는데 우리가 총괄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 상관이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사업 잘 하고 있는데 왜 계속 데이터를 달라고 하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기관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면 잘 주지도 않고 그렇죠.(구성원 B)
- 진흥원은 평생교육 총괄기관으로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강제성이 부족한 현실로 가장 기초적인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업무에 대해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좋다고 하시는데, ‘데이터를 달라.’ 어떤 거를 취합하려고 하면 협조가 안 되는 거지.(구성원 B)
 - 좀 부족한 부분은 전체 개발하는 부분이 아직 부족하고 저희가 전라북도의 데이터나 어떤 현황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구성원 F)

■ 진흥원, 시군행정,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부재

- 진흥원과 시군 평생교육학습관 협조를 위해 구속력이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통한 협조로 보완하고 있음
 - 진흥원하고 시군학습관하고 딱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락을 하고 있어요.(구성원 F)
 - 협의회는 없어요. 그냥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자주 연락은 하고 전체적으로 도도 이제 시군하고 같이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하고 평생교육관 하고 이렇게 협력은 하고 있어요.(구성원 B)
- 시군과 협조체계가 부족한 현실은 인재육성 분야도 비슷함
 - 각 시군의 담당자, 담당부서의 사람들 하고는 저희가 같이 그간에 글로벌 사업 때는 각 시군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 된 거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할 수 밖에 없던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정보공유 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됐었지만 그게 사라진 뒤는 좀(구성원 E)
 - 그래서 저희도 시군에 보낼 때는 저희도 보낼 게 있지만 그냥 도로 보내요. 도에서 시군으로 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답이 와요.(구성원 D)

■ 지역 기관 간 연계성 부족

- 도내 시군에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거버넌스 구조가 부재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함
 - 저희는 전라북도 문해교육 협의회가 있고 시는 없고 시 내에는 군산시 교사모임이 있습니다. 공식 모임은 아니구요.(수혜자 D)
 - 진흥원에서 처음으로 함께 참여를 했는데 사회 복지사로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인터넷 서치를 해서 얻는데 사회복지사들도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사업들을 자세히 알고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수혜자 C)

■ 시군 평생교육학습관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 시군 평생교육기관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포괄적 개념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진흥원을 잘 알지는 못했고 원래는 전주시 평생학습관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수혜자 C)
 - 저희는 관 협회나 이런 곳과 연계를 하고 있고 전주시 평생학습관하고 지원을 받아서 함께 연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수혜자 D)

다.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결합 방안

■ 상담, 다문화, 취미 등 학령기 연령 포함

- 학령기 유소년과 청소년,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상담과 다문화, 취미 등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분야가 중첩되는 분야가 존재함
 - 상담센터라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상담관련해서 대인관계나 정서조절 프로그램도 하고 학교를 다니든 안다니든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면 다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수혜자 H)
 - 복지관 자체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멘토링 사업은 다문화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수혜자 C)
 - 저희는 지역 학생들 대상 진로체험을 했습니다.(수혜자 D)

- 인재육성 수혜자들은 평생교육 개념의 부재로 학령기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을 구별하지 못함
 -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초등학교 6학년 때 중국에 7~8주 갔다 왔습니다. (그때 프로그램인 글로벌 해외연수 명칭) 잘 모르겠습니다.(수혜자 G)
 - 제가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평생교육을 지원을 받아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학교가 아니라 도청에서 하는 과학축전이라 그런 거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정의를 몰라 제 입장에서 이 정도로 느껴집니다.(수혜자 F)

■ 학령기 및 청년 대상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결합

- 학령기 연령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체험하고 있음
 - 저는 (학령기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중에 제빵, 암벽 등반 등 참여를 하고 있고 부모님이 하시다가 자녀분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혜자 E)
 - 저희는 청소년 대상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이번에 사업도 제안을 해주셔서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수혜자 H)
 -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상특화로 지원을 해주셔서 결혼 이민자들이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수혜자 D)
-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결합을 위해 청년 연령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층의 특성에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함
 - 부안군에서도 청년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없고 일단 시간이 안 맞아 청년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서 부안군이 청년센터를 건립하면서 야간에 하는 클래스를 많이 시작했어요. 관련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는데 1~2분 만에 매진이 되었습니다.(수혜자 E)
 - 이번에 (청소년 대상) 모집공고를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모집 되어서 확대되어서 투자가 되면 수혜자들도 늘어날거라 생각했습니다.(수혜자 H)
- 특히 대학생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취업과 취미 등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함
 - 대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취업 관련하게 필요하고 지금 도와 연계된 사업들로 독려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취업 관련해서 면접도 말하는 능력을 키우거나 그런 자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수혜자 F)

- 대학생들도 평생교육 대상인데 성인 위주로 교육을 하면 참여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전공 뿐만 아니라 아트, 바리스타 등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다. 취미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요소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수혜자 F)

5. 장학숙 분야

가. 장학숙 시설 개선 문제점

■ 시설 노후화와 위치

- 진흥원 직원들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장학숙의 시설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서울은 시설의 노후화, 전주는 시설의 위치를 꼽았음
 - 아시는 대로 서울은 시설 자체가 낡았죠. 이제 시설의 노후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구성원 E)
 - 전주 장학숙이 좀 외지잖아요. 사이트에 쳐져있다 보니까 도심권에서 움직이는 거 하고 사이트에서 움직이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위치적 불리함이 좀 있는 것 같고.(구성원 E)

나. 장학숙 인력 운용 문제

■ 과거 불투명한 인사

- 장학숙의 운영 측면에서 채용 등 인력 운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
 - 장학숙 문제는 인력문제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직원은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진흥원에서 뽑기는 하는데 서울 장학숙 사감이면 사감직으로 공고를 내서 뽑고 근데 여기서 뽑기는 하지. 그런데 애매해요.(구성원 B)
 - 예전에는 장학숙에서 채용하기도 하고 재단에서 채용하기도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진흥원으로 채용해요.(구성원 E)
- 채용의 문제는 장학재단 설립 초기 체계를 갖추기 전에 임시방편을 채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임

- 장학숙, 기간이 정해져 있는 5년간 위탁이야. 그리고 5년이 끝나면 다시 재 위탁을 해서 위 수탁 협약을 해. 규정을 만들면서 그 때부터 이제 이게 처음부터 꼬여버린 거야. 그때는 재단이 없으니까 장학숙도 이렇게 같이 재단으로 해버리고 근데 만약에 지금 10년 후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장학숙이 도에서 위 수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안한다고 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고. 나중의 문제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재단에서 뽑아서 장학숙으로 92년 초창기에 발령을 내요. 그리고 재단에서 뽑아서 모집을 해서 전주 장학숙으로 발령을 내고 또 어떤 때는 통합을 하기 전에 어떤 때는 또 재단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너는 전주 장학숙, 너는 서울 장학숙으로 발령을 내고.(구성원 D)

■ 인사발령 근거의 불분명

- 직무를 명시해서 채용하는 현재 채용방식에서 서울과 전주 장학숙 간 또는 장학숙과 진흥원 간 인사발령에서 문제점이 발생함
 - 통합이 되고 나서는 그냥 원장님 오셔가지고는 서울하고 전주 별개로 조직도를 만들어서 별개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채용할 때는 그냥 서울 장학숙 사감직 딱 명시를 해.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채용했냐 하면 인재육성재단 직원 채용 공고.(구성원 D)
 - 인사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구성원 E)
 - 이렇게 해서 발령을 서울 장학숙, 전주 장학숙 내는 거죠. 그게 이게 참 애매한 게 규정을 보더라도 그 전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되고나서 헛갈리는 게 직원들이 나는 서울 장학숙 사감직으로 채용이 됐어. 그럼 이 사람 전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 아니야?(구성원 D)
 - 저도 사무국 예전에 진흥원에 있다가 여기(전주장학숙) 오고 다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고 보니까 딱 선을 그어버리게 되니까, 좀 불명확할 것 같아요.(구성원 J)

■ 고용승계의 불안

- 이와 같은 채용 및 인사는 위탁계약 만료 후 재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승계 문제를 안고 있음
 - 전라북도와 위 수탁 통합이 끝나고도... 계약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구성원 D)
- 장학숙 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외 기타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기 어려움
 - 다른 기관이 (위탁에) 나서야 하는데 없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나서는 데가 거의 없어요. (구성원 H)

다. 전주장학숙 인력 운영 해결 방안

■ 진흥원과 전주장학숙의 역할 분담

- 전주장학숙의 입사률 저하로 폐관이 논의되면 전주장학숙 인력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고용승계를 이루기를 바람
 - 전주 장학숙이 계속 축소가 된다면 진흥원 업무를 이쪽에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구성원 H)
 - 당연하지. 근데 이쪽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진흥원에서 이쪽 업무 줄어든 것을 흡수해가지고 분류를 시키고 나누고 확대하는 것으로 가야지(구성원 G)
- 전주장학숙 직원들은 장기적으로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주장학숙을 통합한 후 장학숙의 시설을 활용하여 진흥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 평생교육 지금 교육이랑 그런 거 하는데 거기 대부분 거기도 위탁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직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 공간도 활용하고 수용하면서 숙식 해결하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충분히 우리는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진흥원의 업무에 같이 연관성 되는 것은 만약 우리 전주장학숙이 축소가 된다면 같이 운영을 해서 여기 진흥원이 (시설로) 들어오는 거죠. 말 그대로 한쪽에 진흥원이 들어와서 그런 평생교육 교육을 여기서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구성원 H)
 - 그것도 굿 아이디어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동 나동이 있으면은 나동이 학생들 장학숙 운영을 하고 가동 부분은 그런 용도에. 우리 직원들도 기간을 두고 이제 이걸 장기 프로젝트로 평생교육사 같은 거 따 가지고 같이 협조할 사람들이 같이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방안도 있네.(구성원 G)



제 5 장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역할과 기능 정립

1.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차이
2.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3.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능
4.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제안



제 5 장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역할과 기능 정립

1.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차이

가.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공통점

-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은 교육을 매개로 시민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공통점을 가진
- 평생교육은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개념임
- 인재육성도 특정분야에서 특출한 업적을 통한 개인적 인재관에서 누구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인 공동체지향적 인재관으로 변화됨
-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공통적인 교육을 통해 도민 누구에게나 보편적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인재육성의 주요 대상은 초중고대학 등 학령기 연령이지만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을 포괄하는 평생교육 대상에 포함됨
- 본 연구의 FGI에서 상담과 다문화, 취미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학령기 연령이 수강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이 결합되는 사례를 발견함
- 따라서 통합된 재단의 출범으로 시간적 개념인 수직적 통합을 이룸

나.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차이점

- 정부정책에서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은 모두 교육부에서 총괄하지만 인재육성은 학교에 재학 중을 주요 대상임
- 반면 교육부의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의 정의를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으

로 명시함으로써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재육성은 학교 안, 평생교육은 학교 밖으로 대상이 구분됨
- 그 결과, 통합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출범으로 물리적 통합을 이루었지만 화학적 결합은 미흡한 상황임
- 본 연구의 FGI 결과, 직원들은 통합 이전 개별 업무를 통합 이후에도 담당함으로써 수혜 대상의 이분적 구분이 지속됨
- 이에 더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업무분리 현상도 나타남
- 재단의 수혜지들도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분야를 포괄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야를 분리해서 알고 있음
- 진흥원의 고유 사업 가운데 교육은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공통점을 지니지만 장학사업은 학령기 연령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목적 사업임
- 더욱이 장학숙 운영은 서울과 전주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만의 예외적 사업임

2.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가. 인재 개념 재정립

- 인재육성 관련 이론적 논의에서 과거 입신출세지향적 개인적 인재관에서 공동체 발전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 인재관으로 변화됨
- 인재 개념은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공동체에 기여하는 보편적 사람으로 발전됨
- 교육부는 미래교육에서 미래학교 본격추진과 공유협력의 고등교육에 더해 전 생애 평생직업교육을 포함하여 학생에서 일반 성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였음

- 정부는 혁신적 포용인재에서 시민역량과 직업역량으로 구분하여 공동체를 위한 능력과 생계를 위한 능력으로 발전시켰음
- 따라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인재를 보편적 개념으로 누구나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성을 갖춘 도민으로 확장할 수 있음

나.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 인재육성 주요업무

- 코로나19 발생 이전 구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주요업무는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 운영,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장학금 지급으로 구분됨
- 2018년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4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서울장학숙 운영 25.0%, 전주장학숙 20.6%, 장학금 3.29% 순으로 구분됨
- 코로나19 이후 인재육성 사업은 크게 전북인재 인성교육 강화사업과 전북형 뉴딜산업 탐구 지원사업, 인재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 전북장학생 멘토링 사업, 다문화 자녀 전북 이해사업, 장학기금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장학숙 운영으로 구분됨

■ 평생교육 주요업무

- 평생교육업무는 도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사업과 평생학습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홍보 사업,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구성됨
- 평생교육진흥원은 시군 평생학습관과 중복성을 회피하기 위해 평생교육프로그램 직접 운영을 지양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 지역의 평생학습기관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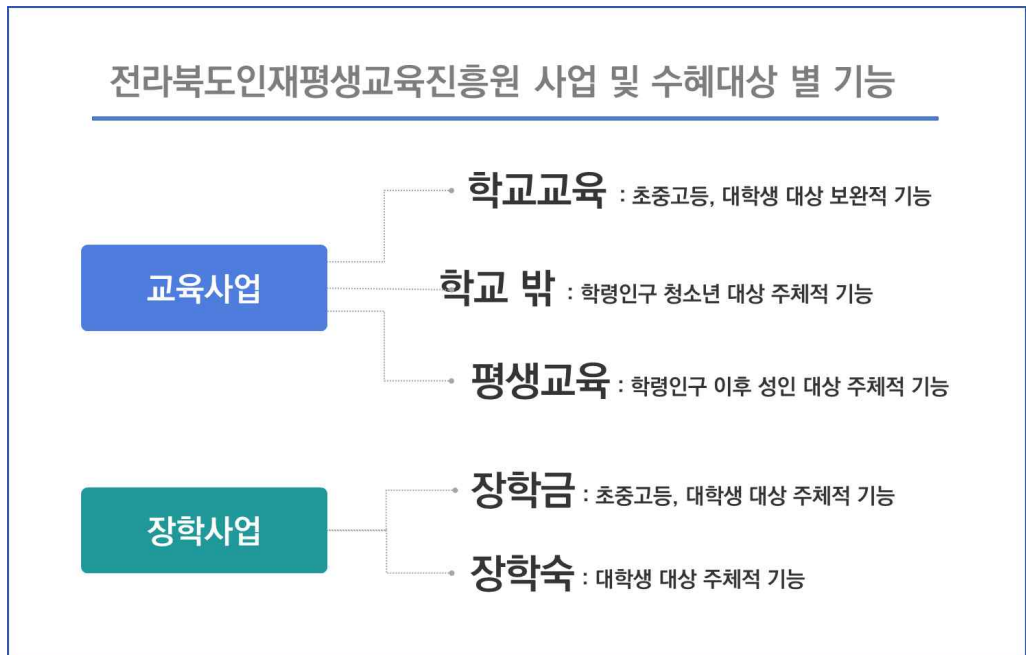
■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으로 구분

- 인재육성 기관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된 전북은 제외한 부산, 울산, 세종, 전남, 제주 등 5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는 크게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으로 구별되어 있음
-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원의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주요 업무를 재분류하면 타 인재평생진흥원과 마찬가지로 크게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교육사업은 인재육성사업 기존 사업 가운데 전북인재 인성교육 강화사업과 전북형 뉴딜산업 탐구 지원사업, 인재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 전북장학생 멘토링 사업, 다문화 자녀 전북 이해사업, 도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사업과 평생학습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홍보 사업, 문해교육 활성화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장학사업은 장학기금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장학숙 운영을 포함함

3.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능

- 구)전북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과 글로벌 체험해외연수, 서울 및 전주 장학숙 운영 등 사업 실행기능을 수행함
- 이에 반해 구 전북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교육과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등 공모사업과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홍보를 통한 평생교육 진흥기능을 담당함
- 통합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수혜대상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아래 표 5-1과 같음

[그림 5-1]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업 및 수혜대상 별 기능



- 인재육성 관련 이론들은 학령인구를 중심으로 인재를 구분하지만 평생교육 관련 법에서 학교를 제외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수혜자가 구분됨
- 전라북도 인재 정의에서 누구나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성을 갖춘 도민으로 범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제도권 학교 안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성인들까지

지 인재평생교육원의 수혜 대상임

- 이를 전 연령대 구분해보면 유아기는 돌봄의 영역으로 평생교육보다 사회복지 차원의 사업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수혜자에서 제외시키도록 함
- 따라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업구분에서 교육사업은 학령인구와 학교 졸업 후 연령대가 수혜 대상임

■ 학교교육 보완적 기능에서 평생교육을 통한 주체적 기능 시도

- 학령인구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학생이 수혜자인 인재평생교육원의 사업은 인재육성 사업에서 시행했던 모든 사업이 포함됨
- 하지만 이들 사업은 교육의 주요 주체는 교육청 산하 제도권 교육기관으로 인재평생교육원 사업을 보완 기능인 특성을 지님
- 구 전북인재육성재단은 글로벌 체험해외연수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언어를 습득하고 체류국가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보완 기능을 수행하였음
- 하지만 2019년 말 코로나19 전 세계적 유행으로 글로벌 체험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중단됨
-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글로벌 체험해외연수 프로그램의 대체사업으로 전북인재 인성교육 강화사업과 전북형 뉴딜산업 탐구 지원사업, 전북장학생 멘토링 사업, 다문화 자녀 전북 이해사업을 시행함
- 이들 사업은 평생교육분야에서 청소년과 다문화를 대상을 시행하던 사업과 유사함
- 이들 사업은 공모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기존 평생교육 기관을 통해 수행됨

- 본 연구의 수혜자 FGI에서 학교교육 대상 프로그램들 기관들은 높은 만족도로 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요구함
- 결과적으로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이 통합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보조 및 공모사업으로 다양한 기관을 통한 교육사업 활성화가 바람직함
- 구체적으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교육기능은 학령인구를 포함한 교육사업의 현안 정책연구 및 개발, 관계자 역량강화, 기관 및 인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요구됨
- 더불어 교육사업 관련 정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모 및 보조사업으로 실행함으로써 수혜자와 맞닿아 있는 기관을 통한 교육사업 진흥을 꾀해야 함
- 이를 종합하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학교교육의 학력보완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양성으로 전인교육의 주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장학재원 확충을 통한 장학사업 주체적 기능 강화

- 장학사업은 구 전북인재육재단 주요 설립 및 운영 목적으로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주요 수혜대상임
- 서울과 전주에서 운영 중인 장학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전문대학교 이상 학력자가 입사 대상임으로 대학생이 수혜자임
- 장학사업은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전북 내 14개 시군 장학재단에서도 시행하고 있음
- 장학사업에서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 장학재단의 연결성이 부족함
- 일반적으로 광역범위 기관은 기초범위 기관의 보조를 통해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
- 특이하게 장학사업은 광역단위와 기초단위가 분절된 사업구조로 개별 운영되어 있음
- 광역과 기초단위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과 대학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장학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광역단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북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사업이 기초단위의 시군 장학사업보다 대상 및 금액에서 불리한 현실임
 -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 대학, 시군과 경쟁에서 장학사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장학재원 확충을 통한 장학사업 확대가 필요함
 - 국내 장학금 기부금 현황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살펴보면 2018년 기준 국내 장학기부금은 대중모금 약 1억 2,400만원과 단체기부금 약 28억원으로 기업을 통한 단체기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함
 - 따라서 여러 명이 소액을 기부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기업 발굴을 통해 소수 기업이 다액을 기부하는 전략으로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이를 종합하면 기업의 기부금을 독려하여 장학재원 확충을 통한 장학사업의 주체적 기능을 강화해야 함

4.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제안

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폐지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19 컨설팅 기능 강화

- 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은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였음
-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준비단계(프로그램 고도화기)와 실행단계(특화 프로그램 개발기), 정착단계(안정기) 등 크게 세 시기를 구분되었음

[표 5-1]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중장기 발전방안

구분	준비단계 (프로그램 고도화기)	실행단계 (특화 프로그램 개발기)	정착단계 (안정기)
시기	· 2020년	· 2021년	· 2022년 부터
추진 전략	· 프로그램 질 향상 · 연수인원 및 업체 축소	· 지역특화 프로그램 도입	· 지역특화 프로그램 정착
주요 방향	·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선 · 연수인원 및 연구국가 축소 · 시군 특화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토론, 시군담당 설명회 등 의견수렴, 벤치마킹 · '21년 사업계획서 수립 및 예산편성(시군 직접운영)	· 특화프로그램 설명회 및 시행 - 시(어학연수), 군(지역특화 프로그램) -재단(컨설팅), 사업시행(시군) · 특화프로그램 성과 및 개선	· 시군 특화프로그램 시행 · 특화프로그램 성과 및 개선

자료: 전북연구원(2019).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해외연수 중장기발전방안. p.217

-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르면 2020년 프로그램 고도화를 거쳐 2021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2020년부터 시군에서 특화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전환을 꾀했음
- 하지만 2019년 말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단축 운영 후 중단되었음
- 2022년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폐지된 상황임
- 포스트 코로나19에 맞춰 시군 소규모 단위로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직접 사업 시행기관에서 컨설팅 등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시군 요구가 있을 경우 도 보조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음
- 과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시군간 학력 격차에 인한 적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따라서 시군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개별 지역 특성에 적합한 특화 프로그램 향을 결정하여 시군에 적합하게 실행할 수 있음
- 시군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되면 전라북도는 시군 특화 프로그램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승인 역할을 담당하고, 인재평생교육원은 과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 등 자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나. 장학금사업 강화

-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제도는 전북사랑 장학생과 희망장학생, 향토인재 장학생, 미래인재 특기장학생으로 구분됨
- 전북사랑 장학생과 희망장학생은 특수고등학교 재학생이 수혜자이고 향토인재 장학생은 대학생, 미래인재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분야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대상임
- 2018년도 장학금 총액은 271백만 원에 불과함
- FGI 결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들도 전라북도 장학금제도가 장학기금 이자 수입 재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함
- 진흥원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은 기업 기부를 통한 장학제도 활성화를 꾀함
- 이에 반해 타 인재평생교육원은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울산인재평생교육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울산사랑장학금과 수능성적 우수 대학 신입생 대상인 울산인재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

학생에게 지급되는 드림장학금, 경제 수준이 낮은 대학생 대상의 희망장학금, 3자녀 이상 가구 대학생에게 다자녀장학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활장학금,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초중고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재능장학금으로 다각화되어 있음

- 전남인재평생교육원은 출향 향우 자녀 가운데 대학생에 지급하는 아름드리 장학금, 고3부터 대학졸업까지 지급하는 전라남도 장학생, 대학 신입생 대상 미래인재 장학생,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멘토링 대학생 멘토 대상 지역공헌 장학생, 경제적 위기 가정 대학생 대상 긴급지원 장학생, 국제대회 수상 초중고대학생 대상 특별공적 장학생, 저소득층 초중고등대학생 대상 한올타리 장학생, 만 35세 이상 만학도를 위한 늘봄만학도 장학생, 도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다원외국인유학 장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움찬학교밖 장학생,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대학생 대상 고향정착 희망 장학생, 농업마이스터 재학생 대상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장학생, 중소기업 근로자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5·18민주 유공자 후손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지급하는 5·18민주유공자자녀 장학생, 소방공무원 중고등대학생 대상 환경자 장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전남은 해양에너지 공급권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해양도시가스 장학생, 전남도시가스 권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상 SK E&S 전남도시가스 장학생, 원전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상 녹색에너지 장학생, 울촌산업단지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상 울촌현대 장학생 등 지역 기업이 인재에 도움을 주는 특별지정 장학금 제도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음
- 타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장학사업의 다각화를 이뤄야 함
- 장학기금의 이자 수익을 통해 자금조달방식에서 탈피해 전남 지역처럼 기업들이 인재육성 사업의 주체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 또는 독자가 명의의 특별지정 장학금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함
- 기부금을 통한 법인세 감면을 강조하여 특별지정 장학금 지원을 독려할 수 있음
- 전남의 경우 한 시군에 국한되지 않고 복수의 시군에 권역별로 해당되는 기업들이 특

별지정 장학금을 제공하는 특성을 지님

- 복수의 시군이 해당되면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전라북도도 한 개 시군 대상 특별지정 장학금뿐만 아니라 권역범위의 사업영역을 지닌 기업을 통한 지역상생 발전 차원의 특별지정 장학금 신설을 추진해야 함

다.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성

- FGI 결과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담당부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14개 시군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기관의 구속력 있는 네트워크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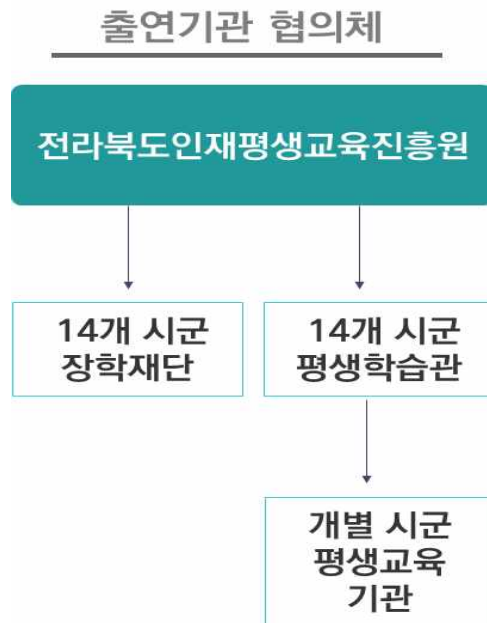
[그림 5-2] 행정협의체



- 전라북도는 2021년 조직개편에서 인재육성팀과 평생교육팀이 하나로 합해져 인재평생교육팀으로 재편되었음
- 반면 시군은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업무를 한 팀에서 담당하거나 두 팀으로 나눠 담당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을 매개로 통합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별 사업추진으로 정보 공유 등 업무 분절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팀과 시군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담당 팀을 아우르는 행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그림 5-3] 출연기관 협의체



-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에서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업무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출연기관을 통한 실행하기 때문에 두 업무의 주 시행기관은 장학재단과 평생학습관 등 출연기관임
- 따라서 행정협의체에 더불어 출연기관협의체도 필요함
- 전라북도 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출연기관도 광역차원에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되었지만 기초차원에서 장학재단과 평생학습관으로 구분되어 있음
- 장학재단과 평생학습관 모두 출연기관협의체의 주요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함

[그림 5-4] 서울 장학숙 협의체

서울 장학숙 협의체



-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서울장학숙 운영임
-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뿐만 아니라 도내 전주시와 정읍시, 남원시, 고창군, 김제시 등 5개 시군에서 서울장학숙을 직접 설립 운영하고 있음
- 임실군과 완주군은 임대방식으로 소수 인력의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음
- 이들 서울장학숙은 군입대 및 휴학, 취업 등 개인적 사유로 공실률 등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음
- 더불어 입학생들의 학교와 거리 등 서울장학숙의 입지 위치가 입사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설립한 서울장학숙의 정보 및 시설 공유를 위한 협의체가 절실함
- 따라서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을 중심으로 5개 시군 서울장학숙 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함

-
- 서울장학숙협의체에서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에 대학생들을 입사시키고 있는 서울장학숙 미운영 9개 시군도 포함되어야 함

라. 창의인재 육성

-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을 활용한 4차산업이 주목을 받음
-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산업사회에서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창조적 기능을 중요시함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을 핵심요인으로 함
- 미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과 협업능력(Collaboration), 비판적 사고 능력(Critical Thinking), 창의력(Creativity) 등을 핵심역량을 설정함(류태호, 2020)
-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전라북도 인재양성 과제로 서재복(2021. 10)은 “첫째 인재에 대한 재정의의 통한 인재선발과 지원정책의 변화,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셋째 고차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융합 교육, 넷째 지자체 차원의 지역인재 육성, 다섯째 장기적 차원의 인재육성 전략, 여섯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교육 강화”를 제안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대학의 창의인재 육성을 통해 4차 산업에 대비하고 있음

-
-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7개 과정, 190명을 교육하였음
 - 더불어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AI 기술전문교육 과정 운영, AI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도내 대학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창의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마. 직원 업무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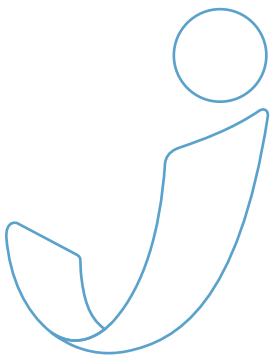
- FGI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이전 인재육성재단 직원들에게 평생교육 업무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함
- 현재 진흥원에서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직원들의 융화와 업무 순환을 위해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최우선적으로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함
- 이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원 역량을 강화시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꾀해야 함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변화

- 현대 인재관은 개인의 입신양면을 피하던 ‘개인적 인재관’에서 공동체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등 공공선을 강조한 ‘공동체적 인재관’으로 변화됨
- 특히 인재는 특정 분야의 빼어난 실력이나 업적을 갖춘 선별적 개념에서 누구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보편적 개념으로 발전됨
- 인재양성의 주요 주체인 교육부도 포용사회 개념을 도입하여 혁신적 포용인재 개념을 도입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평생교육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전 생애 교육을 통한 보편적 개념임
-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은 근대적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랭그랑의 시간적 의미의 수직적 통합을 의미하지만 공간적 의미의 수평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음
- 수직적 통합 개념에서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재육성 분야는 전 생애를 관통하는 평생교육 분야의 부분집합에 속함
- 개별 조직이었던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됨으로써 사업 대상을 수직적으로 통합함
- 하지만 가정과 학교, 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의 유기적 결합을 의미하는 수평적 통합 개념에서 두 기관의 통합은 주요 주체인 학교 기관이 누락됨으로써 완전한 수평적 통합을 이루지 못함

- 현대 인재관과 평생교육은 보편적 개념으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으로 정책변화가 요구됨

나.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구성원과 수혜자 인식

-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분야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었지만 구성원들은 업무가 하나로 융합되지 못했다고 인식함
- 구성원들은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 초기 과도기로 인식하고 업무순환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요구함
- 구성원들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자격증 취득 등 업무 효율성 증대를 제안함
- 구성원들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사업이 보수적인 운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각화와 특별 장학금 신설의 필요성을 인식함
- 광역단위에서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분야가 통합되었지만 기초단위에서 여전히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흥원과 시군행정, 평생학습기관, 장학재단의 네트워크가 부재함
-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출범으로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업무가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수혜자들은 자신과 관련 없는 다른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함
- 제도권 교육기관에 속해 있는 인재육성분야 수혜자들은 자신들이 평생교육분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학령기 유소년과 청소년,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상담과 다문화, 취미 등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분야가 중첩되는 분야가 존재함
- 수혜자들은 학령기 연령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체험하고 있음

- 수혜자들은 인재육성 분야 대상이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융합을 제안함
- 수혜자들은 인재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부족을 인식하고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 강화를 요구함
- 더불어 현장 중심의 인재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관을 시군 거점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함

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

- 전북을 제외한 부산, 울산, 세종, 전남, 제주 등 5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업무를 분석한 결과 크게 교육과 장학 두 가지 역할로 구별됨
-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역시 타 인재평생진흥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장학으로 구분됨
- 통합되기 이전 두 기관은 실행기능과 진흥기능으로 다르게 작용되었음
- 이전 전북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과 글로벌 체험해외연수, 서울 및 전주 장학숙 운영 등 사업 실행기능을 수행한 반면 구)전북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교육과 전북형 행복 학습센터 등 공모사업과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홍보를 통한 평생교육 진흥기능을 담당함
- 통합 이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수혜자 중심으로 구분하면 교육사업은 학교교육에서 초중고등, 대학생 대상 보완적 기능, 학교 밖에서 청소년 대상 주체적 기능, 평생교육에서 학령인구 이후 성인 대상 주체적 기능으로 구성됨
- 또한 장학사업은 장학금에서 초중고등, 대학생 대상 주체적 기능과 장학숙에서 대학생 대상 주체적 기능으로 구분됨
-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이 통합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학교교육의 보완적 기능에서 벗

어난 전인 교육의 주체적 기능을 실현해야 함

- 진흥원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대체사업으로 전북인재 인성교육 강화사업과 전북형 뉴딜산업 탐구 지원사업, 전북장학생 멘토링 사업, 다문화 자녀 전북 이해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한 주체적 기능을 시도함
-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교육기능은 학령인구를 포함한 교육사업의 현안 정책연구 및 개발, 관계자 역량강화, 기관 및 인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요구됨
- 더불어 교육사업 관련 정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모 및 보조사업으로 실행함으로써 수혜자와 맞닿아 있는 기관을 통한 교육사업 진흥을 꾀해야 함
- 진흥원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인 장학사업은 자원 확충을 통해 주체적 기능 강화가 요구됨
- 장학사업은 광역과 기초단위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과 대학장학금 등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 대학, 시군과 경쟁에서 장학사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장학재원 확충이 전제 조건임
- 기업을 통한 단체 기부금이 장학 기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현실에서 소수 기업이 다액을 기부하는 전략으로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2. 정책제언

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변화

- 2022년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폐지된 상황에서 향후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야 함

- 포스트 코로나19에 맞춰 시군 소규모 단위로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진흥원은 직접 사업 시행기관에서 컨설팅 등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시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라북도는 시군 특화 프로그램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승인 역할을 담당하고, 진흥원은 과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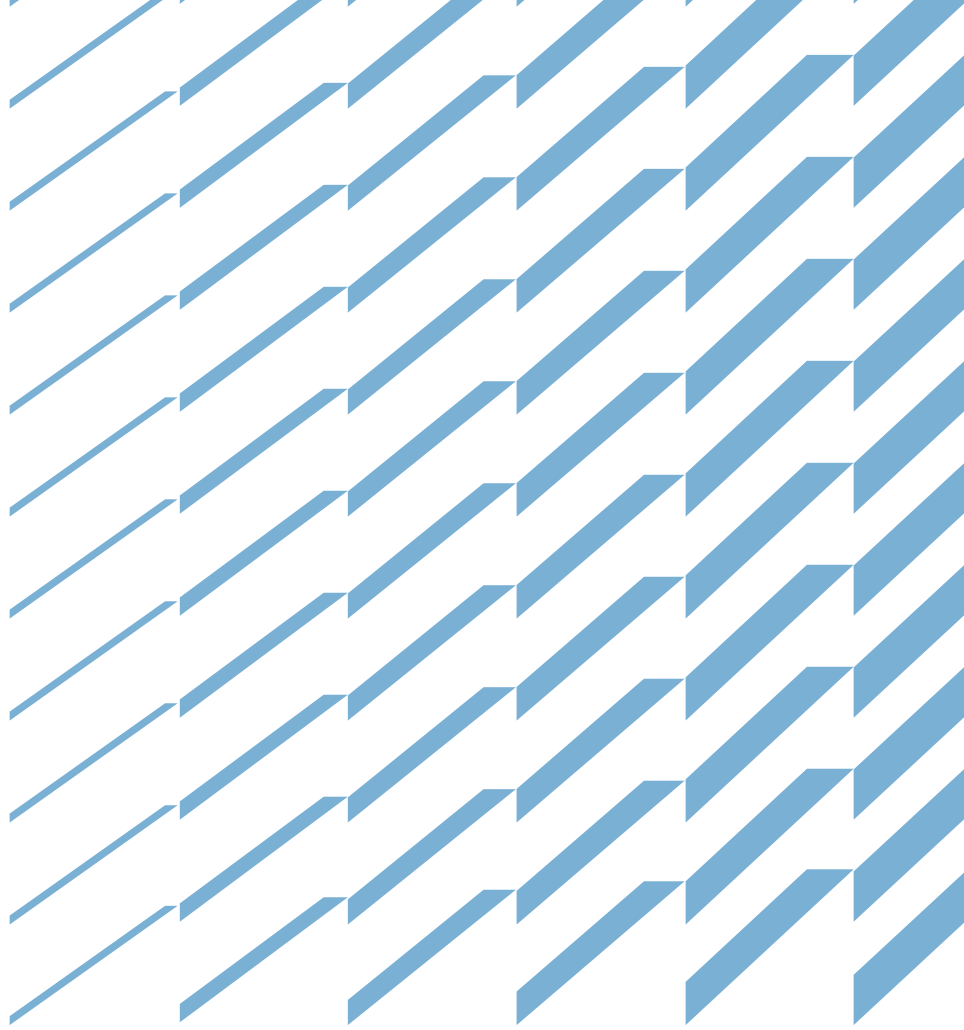
나. 장학금사업 강화

-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제도는 전북사랑 장학생과 희망장학생, 향토인재 장학생, 미래인재 특기장학생으로 타 장학금에 비해 단조롭게 운영됨
- 타 진흥원은 다양한 장학제도와 기업 지정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진흥원 장학기금의 이자 수익을 통해 자금조달방식에서 탈피해 타 지역처럼 기업들이 인재육성 사업의 주체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 또는 독지가 명의의 특별지정 장학금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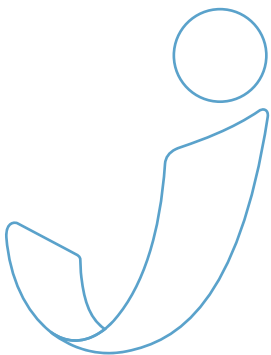
다.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성

- FGI 결과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담당부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14개 시군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기관의 구속력 있는 네트워크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팀과 시군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담당 팀을 아우르는 행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업무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출연기관을 통한 실행하는 특성으로 출연기관 협의체가 필수적임

-
- 전라북도 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출연기관도 광역차원에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되었지만 기초차원에서 장학재단과 평생학습관으로 구분되어 있음
 - 출연기관 협의체에 시군 장학재단과 평생학습관 모두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함
 - 출연기관 협의체의 하부 단위로 시군 단위에서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서울에 장학숙을 운영 중인 전라북도 내 광역과 기초단체 협의체도 필요함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REFERENCE

- 고승한 & 이기성. (2010). 「제주형 평생교육 모형 개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교육부. (2018).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김순남, 이병환 & 황향숙. (2003). 창의성 교육 실태 분석과 교육 정책적 과제. 「중등 교육연구」, 51(2), 41-68.
- 김진덕, 구수경 & 김종두. (2009). 「충북지역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 류태호 (2020). 코로나19가 앞당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Future horizon」, 22-27.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19 국민여가활동 조사.
- 서재복. (2021. 10. 10).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재양성과 과제. 전라북도의회 인재양성 및 다문화연구회 정책세미나 토론회자료집.
- 서지연, 김성국 & 변재규. (2011). 창의인재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영재교육연구」, 21(2), 357-372.
- 성경륜, 김재훈, 김현철, 박능후, 박영범, 송재호, 윤황, 장준호, 정동일, 정성훈, 최상한 & 한동환. (2017).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위하여」. 파주: 21세기북스.
- 윤준상 & 송두범. (2008). 「지자체의 효율적인 인재육성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이침슬.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상 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인간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임유나. (2017). 핀란드 2014 개정 국가 교육과정의 특징 분석: 역량 구현 방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5(1), 145-171.
- 장노순. (2003). 강원도 지역인재의 발굴과 활용방안. 「지역개발연구」, 11, 53-68.
- 최윤규, 조경옥, 김수지 & 전아람. (2019).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해외연수 중장기발전방안」. 전북연구원.
- 최수진, 김은영, 김혜진, 박균열, 박상완, 이상은 & 장압미. (2019).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2019). 「평생교육통계 통계정보보고서」.
- OECD. insights, *The Value of People*, <https://www.oecd.org/insights/37967294.pdf>. 검색일 2021. 5. 16.

정책연구 2022-03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역할과 기능 정립 연구

발행인 | 권혁남

발행일 | 2022년 1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76-6 9337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